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2025년 9월 1일 109호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는 동창회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공약, 실천이 핵심이다
90학번 주관 '상록의 날' 행사
모교 제27·28대 학장, 장판식(식공80)
상록 그리고 상록의 딸, 번데기의 추억
모교 석학, 곽효원(천연섬유04)
특집 김상진 열사 의거 50주기 추모제
75동 융합관 건립

커버스토리

목재 비파괴 검사 기술의 선구자

목재비파괴연구소 이사장,
前 모교학장

이전제

Sunjin

축산, 환경을 품다



정부규제 강화	민 원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분뇨정화 / 퇴비부숙도 8대 방역시설	악취 수질 방류	깨끗한 축산 사회적 의무 증대

GREEN 양돈! GREEN 선진!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낙낙한 세상
Sunjin

EASY FARMING, HIGH LIVING 3 Free - Hands Free · Disease Free · Complaint Free
www.SJ.co.kr 이천 (031)637-1181~5 | 서부 (042)718-5200~3 | 영남 (053)857-5135 | 서울 (02)2225-0661

회보 편집위원



발행인, 동창회장
박식순



위원장
이중용

위원



김훈동



손해일



신창근



강규석



윤철희



박영준



편집국장
이혜숙



간사
조민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2025년 9월 1일 109호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인 박식순
발행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75-1동 207호
Tel 02-880-4525, 882-8630
H.P 010-8823-8630
Fax 02-873-8632
E-mail snunong@snu.ac.kr

편집인 이중용
디자인·인쇄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Tel 02-880-5220
정가 3,300원

동창회 홈페이지 QR코드

차례

4 권두언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는 동창회 동창회장 박식순(농교육77)
6 칼럼 | 농업·농촌·환경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공약, 실천이 핵심이다 이준원(농교육81)
8 커버스토리 목재 비파괴 검사 기술의 선구자 이전제(임산공학70)
12 특집1 90학번 주관 '상록의 날' 행사
22 모교 학장을 찾아서 모교 제27, 28대 학장 장판식(식공80)
26 상록 그리고 상록의 딸 번데기의 추억 김영은(농가정90)
29 모교 석학을 찾아서 리그닌의 변신, 차세대 소재로 재탄생하다! 곽효원(천연섬유04)
33 상록인대상 수상자
35 모교는 지금 75동 융합관
38 특집2 김상진 열사 의거 50주기 추모제 김상진기념사업회
42 모교 신설 학과 소개 스마트시스템과학과
44 특집 모교 소식 강병철(원예86) 박사 모교 제29대 학장 취임
46 상록문학상 시 부문 우수상 소멸의 흔적 남형철(작물생명14)

47 **모교 소식과 교수동정**
48 **재학생 소식**
49 **농생대 동창회 소식**
50 **각 학과 동문회 소식**
51 **동문 동정**
52 **동문 경조사**
53 **찬조금, 기부금, 회비 납입내역**

동창회의 발자취(2025.4.1~2025.7.31.)

2025. 4.10. 동창회 2024년 회계감사
4.25. 제1회 상임부회장, 상임이사 회의
4.25. 상록의 날 준비 90학번 3차 회의
5.10. 90학번 주관 상록의 날, 제12대 박식순 동창회장 취임 및 동창회장 인수인계식
5.13. 상록문화재단 재29회 이사회, 박식순 이사장 취임
5.27. 제12대 동창회 임원진 위촉
6. 9. 동창회 임원진과 모교 前학장단 간담회
6.12. 모교 학장단과 12대 동창회 임원진 간담회
6.26. 동창회 前회장단과 간담회
6.30. 제12대 동창회 상임부회장, 상임이사회의
7.25. 모교 학장 이취임식, 동창회 공로패 증정

알리는 말씀

농생대동창회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동문들께 농생대동창회 근조기를 실비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880-4525, 문자 010-8823-86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회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입금 시 '홍길동 농학 83'식으로 입금 바랍니다.

*동창회보 책자는 동창회 재정 여건상 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하는바,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계좌번호

농협 301-0068-1319-9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입금 시(홍길동 농학 83)

*기부하신 기금은 장학금 지급, 동창회보 발간사업 등에 쓰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는 동창회



박식순(농교육77)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

존경하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문 여러분께!

동창회보 9월호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반갑습니다.

지난 상록의 날 제12대 동창회장으로 취임한 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분주하게 보내며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 사무국의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동문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분주히 애써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뜻을 함께할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생대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동창회의 전 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모교의 전·후임 학과장님들과 교수님들을 직접 찾아뵈며 소중한 의견을 듣고 동창회와 모교 간의 소통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농생대 동문이 모교에 품고 있는 애정과 열정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크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후배들을 응원하고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12대 동창회의 방향성을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문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담아낼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농학교육 120주년을 맞이할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과 생명과학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AI, 빅데이터, IoT, 지능형 농장,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동창회 역시 단순한 친목을 넘어,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12대 동창회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문 네트워크의 강화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소모임, 지역 동문회 활성화를 통해 시간과 물리적 장벽을 허물고, 언제 어디서든 동문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문 간의 교류 폭을 넓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동창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농생대 총동창회와 학과 동창회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화합과 교류의 네트워크를 넓히겠습니다.

또한 동문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ESG,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바이오·의료 등 농생명과학 분야의 최신 이슈를 반영한 강의나 강좌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많도록 동문과 모교가 함께하는 지적 네트워크 역시 활성화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후배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생대에 특화된 장학사업'과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의 경험이 후배들의 진로와 도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록문화재단의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AI·스마트농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창회와 모교가 긴밀하게 협력해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즐겁고 유쾌한 일상 속 교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기모임뿐 아니라, 등산, 문화, 봉사 등 다양한 테마형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동문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선후배가 자유롭게 소통하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선배의 경험과 후배의 새로운 시각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교류의 장을 확산시켜, 농생대 동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글로벌 식량 위기 등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농업과 생명과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농생대와 동창회는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제12대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즐겁게 소통하는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력하지만 제가 앞장서 노력하겠으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 박식순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공약, 실천이 핵심이다



이준원(농교육81)
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서, 그가 제시한 농정 공약에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예산 확대 ▲공익직불금 확대 ▲농촌주민수당 지급 ▲쌀값 지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구체적인 수치나 이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자칫 립서비스(空約)에 그칠 우려가 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볼 때, 이번에도 공약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농업계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들의 농업예산 공약과 현실

농업예산 확대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핵심 공약이다.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농업예산을 국가예산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며 농업재정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농업예산 규모는 노태우 정부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예산 비중도 9.8%까지 올랐다. 농특세는 당초 10년간 한시적 과세였으나 세 차례나 연장되어 2024년에는 약 7조 원의 세수가 발생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 여파로 농업예산 확대가 어려웠다. 제15대 대선 당시 농산물 유통예산을 농업예산의 3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나, 융자 예산 중심의 제한적 확대에 그쳤다.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역시 농업예산 비중을 1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집행된 비중은 5.5%에 그쳐 결국 공약 불이행을 사과해야 했다.

공익직불금 확대의 명암

공익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직불금을 농업예산의 3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집행된 직불금은 농식품부 예산의 약 10% 수준인 1조 3,400억 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직불금은 2조 4,000억 원까지 확대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는 3조 원 수준에 머물러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촌주민수당 공약, 현실적 대안은?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농촌주민수당'을 공약했다. 하지만 전 농가에 월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2조 4,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농촌 거주 65세 이상 고령 농민에게 재산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약속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농촌 고령 인구를 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쌀값 지지와 양곡관리법 개정의 쟁점

쌀값 지지는 역대 대선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고정직불금을 ha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5년마다 결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을 80kg 가마당 17만 원에서 18만 8,000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2016년산 수확기 쌀값이 가마당 13만 원 수준까지 폭락했으나 고정 4.2% 가마당 4만 9,000원을 지급하여 쌀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2018년 목표가격 결정을 앞두고 쌀값이 상승하자 농민단체는목표가격을 2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팜(한국 진천 만나 CEA)



스위스 농촌 포도원 경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목표가격 결정이 여의치 않자 공익직불금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명분하에 쌀 목표가격제를 2020년 폐지해 버렸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이 다시 하락하자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시 폐지한 쌀 목표가격제와 유사하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주요 골자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다.

그러나 시장격리 의무화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즉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감축대상 보조금 한도인 1조 4,900억 원에 제약된다. 더군다나 다른 농산물의 가격까지 보장한다면 매년 보조금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가격지지 프로그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가격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대선에서 약속한 농정공약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예산 확대에 대한 정부 내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지지가 관건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2025년 국가 예산(673.3조 원)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 비중이 3.8%(25.9조 원)로 1차 산업의 GDP 비중 1.5%와 비교할 때 적잖은 규모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는 다르다. 스위스는 농업 GDP 비중이 0.7%에 불과하지만 농업예산은 국가예산의 4.7%에 달한다. 이는 식량안보, 농촌 경관 보전, 지역 균형발전 등 공공적 가치에 대한 보상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고지대 테라스형 포도원에 대한 경관직불금, 초지 방목에 대한 동물복지직불금 등 세분화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관련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전체 직불금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으로의 전환 필요

이제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이자 환경·건강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벼농사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축산, 동물복지, 농촌 경관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공약 이행의 관건이다.

전체 국가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 부문 비중 (단위: 조 원)

년도	2005	2010	2015	2020	2024	2025
총지출	207.8	292.8	375.4	512.3	656.6	673.3
농림·수산·식품	13.8	17.3	19.3	21.5	25.4	25.9
비중(%)	6.6%	5.9%	5.1%	4.2%	3.9%	3.8%

자료: 기획재정부



목재 비파괴 검사 기술의 선구자

목재비파괴연구소 이사장, 前 모교학장

이전제

(임산공학 70)

자택 거실에서, 부인 박종유님과 함께

지난 5월 상록의 날에 상록인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목재 비파괴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목재공학과 목조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것 같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제재소에서 저의 전공을 살려 회사를 키워 보려는 희망을 가졌는데 당시 대학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껴 외국의 새로운 목재 가공 기술을 습득하고자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석사만 마치고 돌아올 계획이었으나, 유학을 가보니 박사과정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일본 정부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박사과정까지 마치는 기회가 주어졌고,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학위취득 과정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새로운 목질 재료의 생산기술 개발보다 이러한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조 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목재의 개발은 목조 건축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목조 건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 교수로 부임한 때에는 아직 국내에서는 목조 건축에 대한 인식이나 수요가 거의 없던 시기여서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사회에 진출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깡통 지식이 되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에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속성장의 결과로 새로운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목조 건축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목조 건축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목조 건축을 위한 구조기준이나 새로운 목질 재료에 대한 성능 규정 등 관련 법규의 제정에 관여함으로써 목조 건축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용인 주택을 CLT(cross laminated timber)로 건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000년에 이미 은퇴 후 거주할 전원주택 택지를 준비해 놓고, 어떤 집을 지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공인 목조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으나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어떤 형태로 집을 지을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CLT라는 새로운 재료가 외국에서 개발되어 유럽 등에서 빠르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향후 대형 목조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래서 CLT를 시범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해 보기 위해 CLT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산 낙엽송으로 제가 직접 가공하여 CLT를 제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이후 CLT는 국내에서도 점차 사용이 확대되었고,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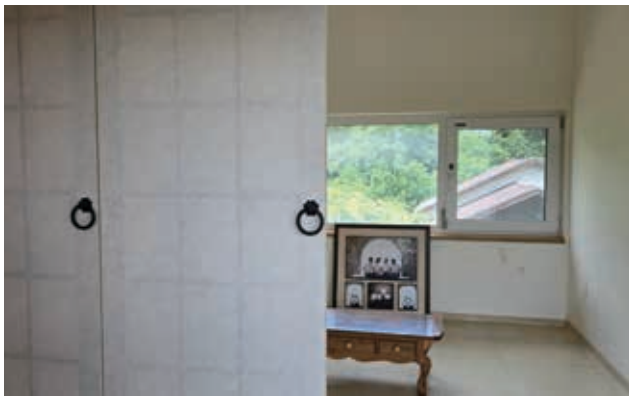
일본에서 방부와 흰개미방지 약재처리된 목재 사이딩과 고벽돌을 재활용하여 변화를 준 외부 벽면



CLT 표면이 그대로 드러난 실내와 환기 및 열에너지효율을 높인 전열교환기 환기구



정원에서 본 모습



2층 중앙부에 자리한 좌식 온돌방

으로 대형 목조 건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 2호 슈퍼-E 인증 하우스라고 하는데 슈퍼-E 인증은 무엇이며 실제 에너지 절감 효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집을 건축할 당시, 해외에서는 친환경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주택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캐나다의 슈퍼-E 같은 인증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 주택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기밀성과 단열성(이후에는 재생 에너지 사용 등이 추가됨)입니다. CLT와 시스템 창호로 인한 기밀성과 단열성 보장과 전열교환기와 태양열 패널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 슈퍼- E 인증을 받는 데 주효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국내 2호 슈퍼-E 인증을 받았지만, 사실상 1호와 비슷합니다. 1호는 캐나다에서 직접 시범적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에너지 절감 효율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지만 요즘 한여름 전기료가 5만 원 내외인 것으로 보아 70%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적으로라도
> 이 연구를 계속 이어 가며
> 목재 비파괴 기술을
>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목재문화진흥회를 창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990년대에 목조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 박람회 등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목조 주택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이 예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목조 주택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실제 건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조 주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재와 직접 접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성년이 되기 전에 목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놀이 문화로 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목재



2017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과 슈퍼-E 인증 하우스 표식



전열교환장치(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흡배기 온도조절)



태양광 전지

문화포럼을 시작하였고, 이후 목재문화진흥회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이 2003년 관악으로 이전하고, 평창캠퍼스가 2014년 개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관악으로의 이전과 평창캠퍼스 개설은 결코 개인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협력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과정 중 사업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역대 학장님들과 보직 교수님들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퇴임 후에 목재비파괴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동기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요?

연구소를 하게 된 동기는 재임 시절 연구했던 일 중 목재 내부를 탐지하는 기술의 개발을 계속 이어 왔으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이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라도 이 연구를 계속 이어 가며 기술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요즘 온난화로 야기된 기후 변화로 인해 목조 문화유산에 흰개미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외부 관찰로는 탐지하기가 어려워 목재 내부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조비파괴 기술은 목조 문화유산의 내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많은 문화유산의 경우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형 탐지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취미 활동은 따로 없습니다.



2016년 정년 고별강의



2005년 목조건축세미나



좌로부터 이전제 동문 부부, 차남 부부, 장남 부부



손녀와 함께

골프, 수영, 걷기 등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며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깁니다. 생활 습관도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스트레스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인물이나 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 영향을 받은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언급할 만한 분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은 법륜 스님의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심오한 논리나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필요로 하는 지혜를 담고 있어, 가볍게 읽고 실천해 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전제(임산70) 동문은 부친 이병지, 모친 조복섬의 2남 3녀 중 넷째로 부산에서 태어나 박종유와의 슬하에 2남을 두었으며 첫째 이*영은 SK C&C에 재직 중이며 둘째 이*영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학력

1967~1970 경기고 졸
1970~1974 서울대 농과대학 임산가공학 학사
1981~1986 동경대학 대학원 임산학전공 박사

주요 수상

1999 한국농업과학협회 한국농업과학상 수상
2008 일본 목재학회 스기야마 메모리얼 어워드 수상
2012 서울대 농생대 상록연구대상 수상
2019 제14회 소호문화재단 가산상 수상
2025 서울대 농생대 동창회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 수상

90학번 주관 '상록의 날' 행사

박식순 12대 동창회장 취임



12대 박식순 동창회장 취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하 농생대) 동창회가 주관하는 '상록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10일(토), 서울대학교 201동 101호 농생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90학번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주관하였으며, 비 오는 날씨 속에서도 2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총 세 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 총회에서는 동창회의 2024년 회계 결산 보고와 2025년 예산안 심의가 의결 통과되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이전제(임산가공 70) 동문과 이범권(축산 75) 동문이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정헌석(농화학 63, 제9~11대 감사) 동문과 정금주(농가정 63, 제11대 포상위원장) 동문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90학번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과 모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1대 서병륜(농공 69) 회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박식순(농교육 77) 동문이 제12대 동창회장으로 인준되었으며,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박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어 동문 간의 화합을 이끌고, 나아가 우리 농업과 농학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감사로는 신창근(농생물 75), 이용균(농기계 82) 동문이 임명되었다.

2부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90학번 동문들이 강단에 도열해 모교 은사들께 '스승의 은혜'를 제창하고 감사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권순국 명예교수(농공 60)가 은사 대표로 나서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상록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90학번 단체사진 및 학과별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다.

3부 여흥의 시간 '번데기의 추억'은 90학번들이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한식당 '락구정'에서 오찬 후 이어졌다. 마술쇼, 퀴즈,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롭고 유쾌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번데기의 추억'이라는 타이틀은 당시 침낭을 덮고 밤새 집회에 참여하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 '상록의 날' 행사는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모교와 동창회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동창회장
서병륜(농공69)

동창회장 축사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록의 날'을 맞아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5월, 주관 학번이 중심이 되어 농생대 정기총회와 더불어 은사님, 선후배님을 한자리에 모시는 상록의 날은 우리 농생대만의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정성과 열정을 모아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입학 35주년을 맞은 90학번 동문들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상록의 정을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동창회 회무 보고와 주요 안건 심의, 그리고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시상과 공로패,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을 수상하시는 이전제 학장님과 이범권 대표님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랜 기간 감사직을 맡아주신 정헌석 동문님, 포상위원장을 맡아 애써주신 정금주 동문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임하는 회장으로서 이임사를 통해 조금 더 깊은 소회를 나누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하루 선후배 간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교 학장
장판식(식공80)

모교 학장 축사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상록의 날'을 주관해 주신 90학번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생대 제27·28대 학장을 맡고 있는 장판식입니다.

'농업'과 '생명과학'이라는 숭고한 학문을 함께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는 우리 동창회가 오랜 시간 정성과 노력을 다해 쌓아온 전통의 결과이며, 선후배가 함께 일군 소중한 결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상록의 날' 행사이기에 감회가 더욱 남다릅니다. 지난 4년간 학장으로 재직하며, 농생대는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큰 전환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신설(2025년 개설)

미래 농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데이터 기반 관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동화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개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는 이러한 미래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75동 융합관의 새로운 도약

2015년부터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로 조성된 75동 융합관은 이제 학문과 기술, 교육과 창업, 연구와 사회적 기여가 융합되는 혁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층부터 6층까지는 첨단 강의실, 실험실, 산학협력 공간, 학생창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연구자·창업가·실천적 리더로 성장할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의 확충을 넘어, 우리 대학이 그리는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발전은 무엇보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덕분입니다. 학교를 떠난 뒤에도 모교와 후배들을 응원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농생대를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대학의 든든한 동



90학번 전체 사진

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임 동창회장 이·취임식이 함께 열려 더욱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서병륜 회장께서는 지난 6년간 동창회를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두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또한, 박식순 신임 회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ROTC 중앙회장을 역임하시며 보여주신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동창회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명예의 헌정자'로 선정되신 정영선 선배님,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을 수상하신 이전제 전 학장님과 이범권 대표님, 그리고 감사패를 수상하신 여러 동문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함께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농생대의 역사이며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농생대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우리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0학번 대표
여기영(조경90)

90학번 전체 대표 인사말

존경하는 은사님들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상록의 날' 행사를 주관하게 된 90학번 대표, 조경학과 졸업생 여기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기꺼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서병륜 동창회장님, 행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판식 학장님, 세심하게 준비를 도와주신 동창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힘써주신 90학번 동기 여러분, 무엇보다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은사님들과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저희 90학번이 입학 3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90년, 19살 겨울의 합격자 발표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35년이 흘렀다는 사실에 감회가 깊습니다. 저희 71년생 세대는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이자 100만 수험생 시대를 겪은 주인공들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여운 속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관악캠퍼스에서는 시위와 최루탄, 백골단이 일상이던 격변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림동 중국집에서의 첫 술자리, 녹두거리의 주점, 자취방의 밤샘 대화, 단체 미팅과 설렘, 농활과

배낭여행 등 대학 생활의 낭만도 풍부하게 누렸던 시절이었습니다. X세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명칭이 처음 등장했던 시대이기도 하지요.

사회에 나와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이름은 늘 자긍심이자 책임감의 원천이었고, 때로는 무게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록의 날 준비를 통해, 동기들을 다시 만나고, 은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옛 사진과 기록을 함께 보며 우리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점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농업생명과학 분야는 물론, 다양한 사회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더욱 발전하여 미래 농생명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0학번 모두도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많은 공감을 얻은 드라마 속 한 대사를 나누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빠는 처음으로 늦잠을 잤다."

쉼 없이 달려온 우리 세대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 아닐까요.

이제는 모두가 마음 편히 늦잠도 자고,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은사님, 동기, 선후배님들,

그리고 참석은 못했지만 뒤에서 마음을 나눠주신 많은 90학번 동문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끝까지 즐겁고 따뜻한 상록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순국(농공60)
명예교수

권순국(농공60) 명예교수 격려사

친애하는 농생대 동창회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농생대 60학번 권순국입니다.

1980년에 농생대 부임하여 27년 봉직하고 2007년 정년퇴직했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저를 2025년 상록의 날에 초청해 주시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격려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록의 날은 12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동창회의 날입니다. 올해 90학번 입학동창 주관으로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은사님과 선배님을 모시는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행사 준비에 애쓰신 90학번 여기영 전체대표와 윤혜정 학내대표를 비롯한 각 학과 대표 여러분과 농생대동창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농생대 동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행사가 모교의 소식을 알고 동문 상호간에 그동안 못다 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족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서병륜 동창회장 이임사

존경하는 농생대 선후배 동문 여러분, 그리고 오늘 뜻깊은 상록의 날 행사를 주관해 주신 90학번 각 학과 대표와 동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농생대 동창회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며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동창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농생대 동창회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한편 동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전임 회장님들이 지속해 오신 장학 사업과 동창회 정례 행사를 충실하게 치렀고 동문 간 교류 활성화를 힘써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창회장직을 맡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수처작주(隨處作主)', 즉 "어느 곳에 있든 주인이 되어 최선을 다하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 회장직을 맡았을 때, 저는 동창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동문들과 함께하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AFP(AgroFood Platform)를 통해 뜻을 함께한 동문들과 농식품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하여 9개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소중한 성과입니다. 시작은 미비하지만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연구,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여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고, 연구 자료를 공유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AFP는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향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장(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자본과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해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족했고 아직 동문 전체의 참여가 저조한 점은 차차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AFP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참여와 기술 강화, 안정적 지원 체계 마련, 동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는 무궁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로 동창회장직을 물러나지만 농생대 동문으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로서 동창회를 계속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회장님 취임과 더불어 동창회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동창회를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동문으로서 언제나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재임 기간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대 동창회장
박식순(농교육77)

박식순 동창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선배님,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후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동창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창회는 그동안 선배님들의 헌신과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단단한 유대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동문 간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학창 시절 ROTC 과정을 통해 동료애와 책임감, 그리고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一日軍隊, 終身軍人(일일군대, 종신군인)", 즉 '하루를 군인으로 보냈다면 평생 군인의 마음을 간직하라'는 말처럼, ROTC를 통해 쌓은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동문들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렸고, 전우애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는 정신을 몸소 익혔습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창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는 서로 기대고,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정례행사와 다양한 교류 행사를 통해 선후배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후배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지속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도 동창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라는 자랑스러운 학문 공동체에서 배우고 성장한 동문들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교훈 아래, 학문의 길을 걸으며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대학에서 학문을 쌓고, 우정을 나눈 소중한 인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이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창회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동창회를 위해 애써 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창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과별 상록의 날 찬조금 내역

학과		대표	찬조금(원)	학과		대표	찬조금(원)
1	농학	김태헌	2,850,000	9	천연섬유	이영근	3,000,000
2	임학	임상표 김종운	4,000,000	10	농가정	김경란	2,300,000
3	축산	축산동기회	3,000,000	11	농교육	김현수	2,300,000
4	농토목	윤상현	2,500,000	12	농지도	황규태	1,450,000
5	농기계	육응수	3,200,000	13	식품공학	박명수	3,800,000
6	농화학	조영일	3,800,000	14	원예	오욱	2,500,000
7	농경제	김태완	3,150,000	15	임산공학	신종찬	3,100,000
8	농생물	김순옥	4,300,000	16	조경학	여기영	2,700,000
총 계							47,950,000

상록의 날 후원물품 내역

이름	학과/학번	소속 또는 후원사	찬조금 및 물품
서병륜	농공69	동창회장, 로지스올 그룹 회장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0장
이범호	축산70	돈마루(주) 대표, 상임부회장	성지농장 행복햄세트 20세트
유치영	농기계82	GSMC 대표이사	이츠웰 캡슐세제 200개 리즈마라 화장품 200세트 GSMC 전기차 휴대용 충전기 2대
정현아	농가정82	만포면옥 은평직영점 대표	만포면옥 식사권(5만 원) 6매 후원
조재구	임학83	대강양조장 대표	대강 막걸리 60병
김준영	농교육84	오경농장 젤란 대표이사	젤란 zellan 200박스
주관학번 찬조			
황일환	축산90	마니커 닭터의자연 삼계탕 선물 40세트	
박명수	식공90	비피도 비피더스 프로바이오틱스 BBA 200세트	
김현정	식공90	대상 청정원 피키타카 초콜릿 3종 각 100개 대상 청정원 먹태열풍 120개 대상 청정원 고구마츄, 밤츄 각 120개 대상 청정원 오란다 100개	
안길수	농생물90	묘목 30~50개 (작약, 모란, 수호초, 핑크뮬리, 수국, 샤인머스켓, 포도, 사철 두릅 등)	



상록인대상 이전제(임산70)



상록인대상 이범권(축산75)



상록인대상 전체사진



상록합창단



서병륜 회장 방명록 기재



박식순 회장 방명록 기재



류관희 고문 방명록 기재



반가운 악수



사회자 이학래 상임부회장



동문들을 맞이하는 90학번대표들



90학번 대표들



정금주 포상위원장 감사패 수여



정헌석 감사 감사패 수여



2부 사회 학내 대표 윤혜정 교수



농학과



임학과



농기계학과



농토목학과



농화학학과



농생물학과



잠사학과



농가정학과



농교육학과



식품공학과



원예학과



임산학과



취임 축하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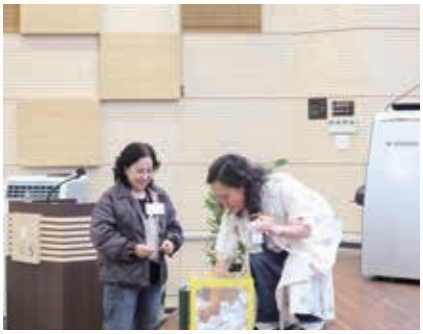
재학생 칼시안 후배들



마술쇼



수리수리마수리



나에게도 당첨의 기회를



아니, 내가?



아니, 나지.



어제 꿈이 좋더만 이런 경사가. 좋은 상록의 날이에요.



잘 심어볼게요.



먹는 게 최고죠.



나 꽝인가봐.



최다참여학과상. 궁금하죠. 궁금하면 내년에 많이 오세요.^^

농생대 숙원 75동을 완성하고 대학 내 농생대 위상을 제고하고 이임하는

모교 제27, 28대 학장 장판식(식공80)



학장 집무실에서

27대, 28대 학장을 연임하셨는데 어느새 이임을 앞두고 계시니 감회가 남다르겠습니다.

학장이나 부학장을 하기 전에는 연구하는 학자로 살아왔기에 행정이라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석하 학장님의 1기 시절, 연구부학장직을 맡으면서 서울대 내 타 단과대학들이 농생대를 '1차산업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각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현대화된 농업과 스마트 농업의 실체를 알리고, 농생대의 이미지를 개선해 위상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출발점이 되어 학장직에 도전하게 되었으며 연임하는 학장의 끝자락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 뒤돌아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의 가슴 속 뭉클한 무엇인가 남다른 감회가 피부에 소름을 돋게 합니다.

한번은 타 단과대학 학원장님들을 모시고 충북 음성에 자리한 오뚜기 대풍공장 투어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정을 통해 농생대가 단순한 전통 농업을 넘어서 식품기업과 연관된 응용 학문이 풍부하다는 점을 알리고,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농업·생명과학의 이미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처음 품었던 뜻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학장 재임 기간 중 동고동락했던 여러 부학장님(안동환 교수, 양태진 교수, 박일권 교수, 류영렬 교수, 허진회 교수, 최경록 교수, 최원 교수)과 행정실장님 두 분(서정훈 님, 박종석 님)께는 거듭 감사드립니다.





왼쪽: 야구부 백학기(총장 배) 우승 후
오른쪽: 2학년 MT, 산정호수
(붉은 티셔츠, 본인이 디자인한 학과 티셔츠)

재임 중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설학과(스마트시스템과학과) 설립인데, 이에 대해서는 너무 장황할 수 있기에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대학원생에게만 국한되었던 BK 사업의 혜택을 학부생에게까지도 확대코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BK 형태 교육환경개선사업인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생을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최첨단 강의실과 공동실험실을 구축하고, 농업생명/AI 융합 과목 발굴, 유관 빅데이터 처리 장비 등을 지원받아 학부생의 교육·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생대 단독으로 채용박람회를 처음 시도했고, 200동 1층의 'U스페이스'를 새롭게 조성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높였으며 관악캠퍼스 내의 핫스폿(hot spot)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농학도서관도 새롭게 단장하였고, 낡은 200동 지하 주차장과 옥상 방수 공사, 수원 농장 본관 리모델링, 최첨단 유리 온실 신축, 75동 재건축 완공/입주에 이어 화수원 재건축/설계 완성 등 학습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학술림·수목원 등 학술연구용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관련 지자체와 주민의 동의를 얻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중 관악수목원 부지는 안양시와의 MOU 체결을 통해 문호 개방을 조건으로 국유재산 양도 완성의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연이어 광양시와의 MOU(현재 실무진들과 접촉 중)를 활용한 '남부학술림 무상양여'라는 서울대 역사상 가장 중차대한 땅(?)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덧붙여,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신설학과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농생대가 융복합시대에 걸맞게 서울대에서는 유일하게 '스마트시스템학과(25명)'를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2025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여 학부 정원이 증원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물론 향후 3~4년 내에 조속히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만 이 숙제에 대해서는 후임 학장님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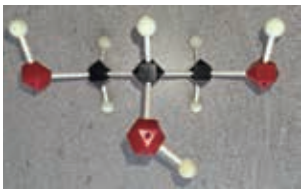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숙원인 관악에서의 협소한 연구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75동을 완성하셨는데 완공까지 난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75동 대학신문 건물을 재건축하여 농생대의 협소한 강의실과 연구실을 확보해 보자는 의견은 이학래 학장님 때부터 시작되었고 건축 도면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정철영 학장님 때, 건립기금 모금이 시작된 것은 이석하 학장님 때부터였습니다. 이렇듯 농생대의 숙원이었던 75동(구 대학 신문사 건물) 재건립은 여러 학장님의 오랜 노력의 합작품입니다. 제가 학장이 되어 약 5개월이 지나서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초기 건축 예산은 270여억 원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농생대가 모은 60여억 원과 그 나머지는 총동창회와 본부가 충당하여 착공했는데 그사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건비와 자재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대폭 증가하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단을 고민해야 할 정도의 상황에서, 밤잠을 설치던 때에 딱한 사정을 파악한 삼진글로벌넷 강정헌 대표님께서 선뜻 20억 원을 기부해 주셨고, 류관희 교수님의 주선으로 아무개 동문 선배님(익명을 절대 고수하심)께서는 자녀도 모르게 간직하던 1억 원의 수표를 직접 들고 와 주셨습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한 순간들이었고 덕분에 완공까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75동은 306억이 들어가면서 작년 말 무사히 완공되었습니다. 오해도 많았지만, 해명보다는 완



효소공학실 신년회 단체사진


중성지방질 모형


글리세롤 모형

공에 집중했고, 완성된 지금 모든 오해가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꿈만 같습니다.

재임 중 우리 대학 출신의 교수님들이 본부 요직에 많이 등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재임 중 농생대 출신 교수님들이 연구처장(강병철 교수), 교무처장(안동환 교수) 등 본부의 요직에 다수 임명되었으며, 농생대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경록 교수님은 학생부학장과 경력개발센터장을 겸직하셨고, 양태진 교수님은 그린바이오연구원 원장을, 이찬 교수님은 평생교육원장에 이어 첨단융합학부 부학(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는 관악캠퍼스에서의 우리 농생대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뜻하며, 지금의 위상이 가장 절정에 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행정철학은?

정직과 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어려서 신앙심이 깊으신 어머님(감리교회 권사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이행! 거짓은 절대 불허!'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업무를 추진할 때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고 철칙입니다. 학장직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에게는 투명한 행정을 강조하였고 직원과의 소통을 중시여겨 회의를 자주 가졌습니다. 때로는 강도 높게 채근하기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 욕심이 과했다는 생각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해 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연구는?

서울대와 KAIST 석사·박사 과정 때부터 접해 온 효소 중 지방분해효소인 라이페이스(lipase)에 대한 분야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히 중성지방질의 글리세롤 골격 2번 탄소 위치만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sn-2 위치 특이성 라이페이스(sn-2 lipase) 효소 발굴 및 변이 연구와 이를 통해 개발된 효소를 이용해 값싼 기름으로부터 고가의 기능성 재조합 지방질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 효율 수준의 특이성을 보이는 라이페이스를 뛰어넘어, 더 높은 효율의 특이성을 갖는 라이페이스를 개발하고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산업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지방질을 생산하는 데 전 세계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으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오해받고, 사실무근의 소문을 감내해야 했던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일이 해명할 틈도 없이 눈앞의 일들을 처리해야 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비난이나 힐난도 들었고 과연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받았지만, 학장의 자리는 그런 위치라고 제 자신을 다독이며 묵묵히 맡은 바를 수행해 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두 구절을 습관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아침과 저녁 그리고 매끼 식사 전 기도로써 나아갔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무엇이며 농생대에 대한 바람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음악과 미술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시절 작곡도 하고, 미술반 활동도 했지



좌측부터 장판식 학장, 부인 이혜자 님, 차녀 장윤정, 외손자 김영훈, 둘째 사위 김원호, 외손자 배이준, 장녀 장윤지, 첫째 사위 배재우

만 결국 그 길로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학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해외의 서울대 농생대 국제캠퍼스 설립입니다. 카자흐스탄 등을 후보지로 구상했으나, 코로나19로 무산되어 안타깝습니다. 후임 학장님께서 이 꿈을 이어받아 농생대의 세계화를 이루어주시길 간곡히 청해 봅니다.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학생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직과 최선'입니다. 저희 연구실(효소공학실) 대학원 학생에게 종종 전하는 자작(自作)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타후자박(他厚自薄)', 남에게는 후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뜻입니다.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성어의 뜻을 잘 새기면서 동료들과 생활해 나가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고 지지해 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혜자 여사, 윤지, 윤정, 배서방, 김서방,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준이, 영훈이 모두 사랑합니다."

장판식 동문은 부친 장이출과 모친 오원옥의 1남6녀 중 여섯째로 태어나 이혜자와의 슬하에 2녀를 두었으며 장녀 윤지는 교수, 맏사위 배재우도 교수, 차녀 윤정은 강사로 재직 중이며 둘째사위 김원호는 치과병원을 운영 중이다. 외손자로 김영훈과 배이준이 있다.

주요 경력

2022. 3.~현재	농식품생명과학협회 회장
2023. 3.~현재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식품분과위원장
2023. 8.~현재	한국식품연구원 기술기획자문위원회 위원
2024. 1.~2024. 12.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2021. 7.~2025. 7.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2021. 7.~2025. 7.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명예회장
2020. 3.~2023. 5.	농업진흥청 농업미생물사업단 단장
2020. 11.~2022. 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자문위원
2016. 1.~ 2017.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고용추천서 심사위원회 위원
2015. 4.~2017. 3.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농생대 회장)

주요 수상 내역

2022	한국식품과학회 우수논문상
2020	한국식품과학회 우수포스터상
201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사업발전공로상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100선
201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2017	한국식품과학회 효소공학상
2011	한국식품과학회 우수포스터상
2011	서울대학교 우수강의상
2010	Outstanding Paper Award, International Society of Biocatalysis and Biotechnology
2004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사업 수행상
2000	한국식품과학회 학술진보상

번데기의 추억

관악 이전의 비사(祕史)



김영은(농가정90)

쨍쨍한 여름, 온통 콘크리트로 된 건물과 바닥 그리고 담벼락을 가득 채운 흰 천자락, 33년 전 그날이 생각난다.

요즘처럼 찌는 더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값 하는 여름 햇살 아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연기하던.

우리나라의 그 어디보다 정치에 민감했던 대학가, 입학 후,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발견하고는 그 부조화에 한없이 어지러웠던 그때, 행동하는 지성은 용감한 참지성이고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참지성이 아닌가 하는 그 혼돈이 조금씩은 정리되어 가고 있던 나의 3학년, 1992년이었다.

드디어 군부독재가 끝나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그때, 농대는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바로 오래전부터 염원해왔던 농대의 관악 이전이라는 큰바람이.

그해에는 복학생이었던 김원봉(농화학 88) 형이 농생대 회장에 선출되어 학생회를 꾸린 해였다. 주사파(NL파,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운동권)니 PD(민중민주파, 계급투쟁으로 자본주의 타도가 목적)니 하는 허울뿐인 명패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라 성향이 다른 나로서는 그들이 앞세우는 구호가 꺼려져 피해 다니던 때이기도 했다.

농대의 공연분과는 농활 기간에 향연, 두레, 메김소리, 탈반 네 개의 동아리와 함께 연극과 음악공연을 준비해서 농활대가 마을 잔치를 여는 그곳에서 공연하는 '농활 문선대'를 운영했다. 마치 유랑극단처럼 트럭에 짐을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돌며, 저녁에는 공연을 하고 다음 날 오전에는 농활 활동을, 오후에는 다시 다른 마을로 이동해 저녁 공연을 하는 일정이었다. 나름 엄청 고단한 일정을 가진 행사로 힘든 만큼 끈끈한 정도 생기고, 더 나아가면 핑크빛 사랑도 생기던 그런 행사였다. 우리는 농생대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다른 대학들의 농활 장소에서도 요청이 있을 때면 찾아가서 공연을 하곤 했다.

1992년, 그 여름도 그렇게 시작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왔슈〉라는 극의 주인공 엄마로, 어떤 때는 민요를 부르는 가수로 충청도와 경기도 일부를 돌고 돌아오니 새로 복학한 최재관 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농대 이전 바람을 들고서. 연극회에서는 연극을 위해 필요한 연기 지도, 사물놀이, 민요, 탈춤 등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 다음 학기 공연을 준비하는 여름 합숙을 한다. 복돌이 재관이 형은 여기서 농대 이전 바람을 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공부만 하던 친구들, 같은 마음이지만 행동은 할 수 없는 친구들,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왜 가냐고 생각하는 친구들, 무엇보다 우리 연극회의 처지에서는 농대 전체 행사에 후배들이 나가게 되면 연극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여러 번의 회의 끝에 문선대 연출을 하던 내가 학생회 예술단에 합류하기로 하고 남은 연극회 회원들은 농대인의 고민을 담은 새로운 창작 작품으로 정기 공연에 올리기로 하였다.

관악 이전 투쟁은 돌이켜 보면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입학하고서 처음 만난 선배가 이끈 연극동아리가 지방에서 올라온 나에게는 관악에서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아리 방에 갔다. 선배들에게 연극과 인문학, 역사(세계역사, 민주화 역사, 학생운



농토목학과의 관악이전 피켓시위



윤여창 교수의 대학신문 기고

동 역사 등)도 듣고 노래와 민요도 배우고 부르고, 대본도 고치고 쓰고 연기 연습도 하는 연극동아리는 내 생활의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2학기 때부터였나 보다. 항상 내가 먼저 찾던 동아리 방이 왠지 어색해지던 그 어느 때. 찾아간 동아리 방이 텅 비었기에 돌아온 기숙사 문 앞에 동아리 친구들이 서 있었다. 날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웃고 즐기며, 기숙사 문이 닫히기 전, 음대와 미대 앞 숲길을 지날 때면 '귀신이다!' 하고 소리치며 함께 웃고 떠들며 뛰어오던 그 친구들. 그런데 내 얼굴을 보더니 쭈뼛쭈뼛한다.

"다들 여기 있었네. 오늘 저녁에는 안 모여?"

웅얼거리며 대답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건물에서 친구 한 명이 걸어 나온다.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모르는 척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그런데 남자 친구들은 쭈뼛쭈뼛하며 서 있고 여자 친구가 말한다.

"어~ 오늘 ○○ 언니랑 만나기로 했는데, 넌 안 가도 돼."

그렇게 세 친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멀어져 갔다.

나중에 그 친구 중 한 명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넌 농대 내려갈 거잖아."

그 일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 이후로 관악은 더 이상 내게 예전의 관악이 아니었고, 동아리 방 역시 예전 같지 않았다. 방황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아주 높은 학번의 선배가 나를 찾아왔다.

"너 농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연극 계속하지 않을래?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학로에서 우리가 창작극을 올리려고 해. 그때까지 참고 관악에서 버텨주면."

나는 단숨에 말을 잘랐다.

"오빠, 그러면 우리 부모님 죽어요."

그렇게 나의 1학년은 마무리되었다. 캠퍼스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처음 느꼈다. 얼마나 많은 차별이 그렇게 자기들의 편의 때문에 자행되고 있을까?

그 기억들이 재관이 오빠의 제안에 소환되었다. 우리의 농대 관악 이전 싸움이 성공하건 못하건 세상에 나 같은 아픔을 알릴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설렘이 그 기억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공연팀에 합류했고 노래, 연극, 춤과 사물놀이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화롭게 섞이는 집체극의 형식으로 공연을 준비했다.

첫 공연은 〈첫발은 크게!〉였다. 준비하는 내내 교수님들과 학생회의 논쟁이 계속되었고, 각 과 학생회에서의 토의도 계속되었다. 장소는 어디로 할지, 기간은 어떻게 할지, 그동안 수업은 어떻게 할지, 상록 교정의 어느 한 군데 잔잔한 곳이 없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결정된 내용 역시 없었다. 그 뿌연 안개 속 같은 뜨거운 여름 7월.

드디어 대본이 나오고, 그에 맞는 음악도 나오면서 20일경에 집체극은 발대식을 열었다. 1학년이던 92학번 후배들이 매일 농대로 와 주었다. 관악에서 하루에 두 번 운행되는 셔틀을 타고 와서 연습하고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강행군을 버텨주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지나 드디어 8월 31일 수원 농대에서 농대 이전 투쟁을 알리는 출정식이 열렸고 우리는 집체극을 올렸다.

'첫발은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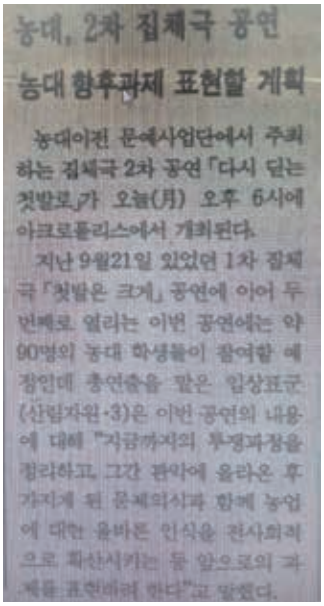
출정식을 마쳤지만, 변화는 없었다. 대학 본부에서도


서울農大生 250명自退書
40% 등교안해 집단留級우려
學事일정 불안 軍입대등 休學 예년의 2배
정부선 移轉不許 교수들 大統領에 호소문

문화일보(1992. 11. 19.)


水原서울大農大이전 두달째 "진통"
學生들 "비행기소음등수업지장…옮겨달라" 농성
정부선 "수도권 人口억제" 이유 不許 계속 고수

한국일보(1992. 11. 26.)


농대, 2차 집체극 공연
농대 향후과제 표현할 계획
농대이전 문예시업단에서 주최하는 집체극 2차 공연「다시 딛는 첫발로」가 오늘(月) 오후 6시에 아크로폴리스에서 개최된다.
지난 9월21일 있었던 1차 집체극「첫발은 크게」공연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약 90명의 농대 학생들이 출연할 예정인데 총연출을 맡은 임상표군(산림자원·3)은 이번 공연의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투쟁과정을 정리하고, 그간 관악에 올라온 후 가지게 된 문제의식과 함께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앞으로의 과제를 표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농대이전 문예시업단에서 주최하는 집체극 2차 공연「다시 딛는 첫발로」가 오늘(月) 오후 6시에 아크로폴리스에서 개최된다.

지난 9월21일 있었던 1차 집체극「첫발은 크게」공연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약 90명의 농대 학생들이 출연할 예정인데 총연출을 맡은 임상표군(산림자원·3)은 이번 공연의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투쟁과정을 정리하고, 그간 관악에 올라온 후 가지게 된 문제의식과 함께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앞으로의 과제를 표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농대 이전촉구 2차 집체극 안내

언론에서도 대선의 기류를 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그 어디에서도 답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관악으로 올라가기로 하였다.

9월 21일 첫 관악 등굣날 우리는 아크로 광장에서 다시 한 번 〈첫발은 크게〉를 공연했다. 학생회에서는 빈 강의실을 찾아 교수님들께 수업 진행을 부탁드렸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관악에서의 수업은 어렵지만 진행되었다. 그러나 농생대 학생들 대부분이 수원에 숙소가 있던 관계로 관악으로의 등하교가 여의찮아 관악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관악의 추운 밤이 시작되자 학생회에서는 침낭을 준비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번데기가 되어 관악의 이곳저곳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농대 이전 싸움을 지속해 나갔다.

그렇게 번데기처럼 침낭에서 밤을 견뎌내는 것은 농대 이전을 향한 우리의 절실함을 보여주었고 관악 이전 이슈가 언론을 타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래서 92년 농대 이전 싸움을 우리는 '번데기 투쟁'이라고 부른다. 수업 거부는 흔했지만, 교내 노숙 투쟁은 흔하지 않았던 것일까? 번데기 투쟁은 언론을 탔고 여기저기서 우리의 소리를 실어주었다. 윤여창 교수님도 우리를 지지하는 글을 대학신문에 올려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11월 26일인지 27일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날 밤이었다. 아크로와 도서관에서 새카맣게 창문으로 우리를 보아주던 학우들까지 헤아리면 얼추 만 명은 되었던 것 같다. 잔디밭에 앉을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 앞에서 두 번째 집체극을 올렸다.

〈다시 딛는 첫 발로...〉

이번에는 상표(임학 90)가 총연출로 고생했다. 2차 공연에서는 우리 농생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의 농업, 우리 삶에서의 농업의 모습, 그 안의 농민을 담으려고 애썼다. 안타깝게도 대본은 남아 있지 않다. 그 이후에도 12월이 될 때까지 우리는 수원캠퍼스를 비워둔 채 관악에서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2차 집체극이 끝난 후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마도 내가 병이 나서 누워있던 동안에 싸움이 정리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신문자료와 사진에 의해 기억을 보정해 가며 번데기의 추억을 정리해 보았다. 글을 쓰다 보니 나름 많이 기억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빈 곳이 많다. 그 구멍들은 다른 친구들의 기억이 메워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나의 번데기의 추억을 마친다.

후배들은 알까? 관악 이전에 번데기가 있었음을.

참, 재관이 형은 농민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양평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두 번 출마했지만 두 번 다 낙선했다. 서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선거철에 양평 주민들을 만나면 나는 "우리 선배인데 일은 확실히 잘할 테니 뽑아달라"는 정도의 홍보를 해주고 있다.

리그닌의 변신,
차세대 소재로 재탄생하다!

농림생물자원학부 환경재료과학

곽효원(천연섬유04) **교수**



먼저 2024년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환경재료과학전공에서 친환경공정연구실의 연구책임자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소재 개발과 친환경 공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Lignocellulosic Processing입니다. 리그노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매스의 추출, 블렌딩, 고분자 합성 공정을 통해 바이오 기반 소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림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Advanced Materials입니다. 생분해성 필름, 나노섬유, 하이드로젤 등 고기능성 소재를 지속가능한 공정으로 개발하고, 이들의 기계적, 열적, 화학적 특성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기능 관계를 규명하여 소재의 고내구성, 고기능화를 추구합니다.

셋째는 Environmental Solutions입니다. 개발한 소재를 기반으로 에너지 저장, 오염물질 제거, 지속가능 포장재 등 환경 문제 해결형 응용기술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바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수상 후 소감 발표



영국 박사후 연구원 시절 세븐 시스터즈에서

이오매스 유래 흡착제, 기능성 나노복합재, 친환경 포장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희 연구는 '소재의 설계 → 공정 → 응용'의 전 주기를 다루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상 프로필을 보면 본교 부임(2019년) 후 국내외 저널에 83편(SCI 7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학술대회에 130여 건, 특허등록 3건 등 어마어마한 연구 실적이던데, 그중 제1의 연구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간 발표한 논문과 특허, 학술 발표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성과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기반 기능성 흡착 소재 개발 연구입니다. 리그닌, 셀룰로스 등 지속 가능한 자원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흡착제를 설계하여 중금속, 유기 오염물, PFAS(과불화화합물)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리그닌을 분자량· 구조 제어, 나노입자화, 양이온화 개질 등을 통해 표면 특성을 조절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효율· 선택적 흡착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폐수 모델과 실제 환경 조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등 국제 저명 저널에 다수 게재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친환경 수처리 소재 분야의 학술적 기여뿐만 아니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 학생들은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특성과 함께 강의와 교육을 하시면서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학생들은 주도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저는 강의와 연구 지도를 통해 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문제 해결형 사고를 기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도록 격려하며, 연구와 학습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상담교수제, 신입생 환영회, 개강총회를 포함한 전공 모임, 학술림 임산실습과 같은 전공 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과 호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여러 사정상 2003년 늦게 관악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80, 90년대 학번들은 1학년 때는 관악에서, 이후 학년은 수원 캠퍼스에서 학업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관악 캠퍼스에서 전 학년을 수업한 학번 세대의 선두이신데 학창시절과 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관악 캠퍼스에서 전 학년을 수업한 첫 학번 세대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 연구실 단체 사진

로, 새로운 교육·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 큰 행운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학문적 정통성과, 시대 변화에 맞춘 융복합 학문 간의 접점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학부 시절부터 그 정통성과 융복합 사이에서 다양한 진로의 길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소재·과학·공학적 접근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소재 연구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졌던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문지도 교수이신 이기훈 교수님(잠사91)을 포함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 뵈었던 바이오소재공학 및 환경재료과학 전공의 여러 교수님께서 학문적 방향성을 잡고 연구자의 태도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열린 조언 덕분에 저는 학문적 성장을 거듭하며 오늘의 연구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도 제 연구와 교육 활동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훌륭한 학자가 되도록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 생활의 시작부터 박사과정까지 긴 시간 동안 저를 지도해주신 바이오소재공학 이기훈(잠사91) 교수님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구자의 기본 자세와 학문적 정직성, 그리고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성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태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며, 가족처럼 가까이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연구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사회 경험의 기회도 마련해주셔서 저의 시야를 넓히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도 제 학문과 삶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의 긴장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미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함께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자연을 느끼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힐링이자 재충전의 기회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연구뿐 아니라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같이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이런 호흡이 연구실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저에게도 새로운 에너지를 주곤 합니다.

꼭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주로 바이오매스 기반 소재의 구조-기능 연계성과 친환경 응용 가능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한 걸음 더 확장하여, 지속가능성과 고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석유화학 대체 소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리그닌처럼 오랫동안 저평가되었던 소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에너지 저장, 환경 정화, 생분해성 기능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제 미래의 연구 주제입니다. 단순히 좋은 데이터를 넘어, 실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제자와 후배들을 위해 환경재료과학의 미래에 대한 소신 발언 부탁드립니다.

환경재료과학은 이제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수식어에 머물 수 없는, 매우 전략적인 학문 분야가 되었습니다. 탄소 저감, 친환경에너지,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와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술' 그 자체보다 '문제해결력'을 중심에 두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소재 하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한다면, 이 분야는 분명



곽효원 동문은 부친 곽이훈과 모친 이기해 사이에서 2남 중 둘째로 태어나 황혜림과의 슬하에 시하, 시우 두 자녀를 두었다.

좌측부터 곽효원 교수, 장녀, 부인, 차녀

더 큰 의미와 확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신 만큼, 가족분들의 응원과 희생도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를 포함한 학교생활에 몰입하다 보면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지나갈 때가 많았고, 가족의 시간에 제 그림자가 비치지 못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묵묵히 응원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지금의 길을 걷는 데 있어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키워주신 점, 평생의 은혜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께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 연구와 삶이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럽고 따뜻한 기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약력

2010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소재공학 전공 (학사)
2016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소재공학 전공 (박사)
2019~현재	서울대학교 환경재료과학전공 조교수, 부교수
2020~현재	한국목재공학회 운영이사
2022~현재	BK21 FOUR 농림생물자원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운영위원
2023~현재	서울대학교 환경재료과학전공 전공주임
2022~2024	서울대학교 미래환경산림자원연구소 선임연구부장

주요 수상 내역

2022	한국고분자학회 신진연구자상
2023	한국잠사학회 신진연구자상
2024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2025	한국목재공학회 신진연구자상
2025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상록인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전제(임산공학70)



수상소감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교수로 재직하면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업적이나 동창회에 큰 기여를 한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조금의 자긍심이 허락된다면, 농생대 캠퍼스의 관악 이전 계획이 완성되는 데에, 그리고 평창 캠퍼스 신설에 작게나마 일조할 수 있었던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캠퍼스의 관악 이전은 오랫동안 농생대 교수님들과 많은 동문이 함께 노력한 성과임은 당연하나 중요 고비마다 마침 가까운 위치에서 미력이나마 더할 수 있었으며, 평창캠퍼스 신설의 경우 국회의 예산 마감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산 확보를 하는 등 농생대 1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업에 저의 미력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회상하면서 자랑스러운 상록인상의 수상에 조금이나마 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농생대 동창회의 영원한 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전제 동문은 1987년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국내 목재 학문 분야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목재의 비파괴 기술로 국내에 없었던 목재 비파괴 연구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기초 및 응용 기술 연구를 수행하여 당시 초보 수준의 목재 비파괴 기술을 현저히 향상시켰다. 해당 기술은 제재목의 등급 구분 기술에 적용되어 국산 구조재의 활용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공학목재인 집성재 제조를 위한 라미나 등급 구분 기술에 적용하여 목재 내 옹이 등의 결함 탐지 및 정량화 기술로 발전하였다. 또한 국산재를 공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재목의 성능 평가 및 등급 구분 체계, 각종 설계 기준, 내화, 층간 소음, 공학 목재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박사 11명, 석사 13명의 후학을 배출하였으며, 국제학술지를 포함한 정기학술지에 111편의 논문 게재, 『목조건축 설계 매뉴얼』 외 8권의 저서를 저술하는 등 목재 비파괴 및 목재 공학 분야에 이바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목재공학회와 목재문화진흥회 회장을 역임하며 목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이끌며 산업계와 학계의 공동 발전을 위해 힘썼다. 국내의 우수한 업적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연구자와의 원활한 협력을 목표로, 한중일 공동 세미나, IUFRO(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학술대회, 세계목조건축대회(World Conference on Timber Engineering)를 개최하고, 관련분야가 다양한 국제 학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국제 교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대학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여, 학생부학장, 기획실장, 학장, 임업과학연구소 소장, 창업보육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면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숙원 사업이었던 관악캠퍼스로의 이전과 강원도 평창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요 경력	주요 수상 내역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한국 목재공학회 공로패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업과학연구소장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장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대상
미국 Washington 주립대학교 교환교수	Japan Wood Research Society Sugiyama Memorial Awards
IUFRO 조직위원회 위원	한국농업과학협회 한국농업과학상 학술상
목재문화포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부 제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한국목조건축협회 고문	농림부 장관 표창
한국목재공학회 상임이사	
서울대학교 농업과학대학 동창회 상임부회장	

상록인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범권(축산75)



수상소감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고맙기도 하지만, 민망스럽습니다. 아마도 산업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그 분야에서 성실히 한 것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농대는 저에게 살아가는 데 대한 많은 사유의 과제를 주었습니다. 매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애썼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대를 다니면서 터득한 자세입니다.

후배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꿈을 꾸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범권 대표는 1982년 서울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였다. 1988년 선진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2년 대표이사로 승진한 이후 현재까지 선진을 이끌고 있다. 이범권 대표는 1998년 선진 필리핀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앞장섰다. 또한 모교 동창회 사랑에도 남달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계속해서 동창회보에 광고를 후원해주고 있는데 84호로 시작하여 현재 108호까지 이르고 있다. 광고 후원 총액은 5,500만 원에 이른다.

선진은 1973년 경기도 이천의 작은 양돈 농장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사료, 양돈, 식육, 육가공 등 축산식품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범권 대표는 이러한 선진의 성장 과정에서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국내 최초의 돈육 브랜드인 '선진포크'를 출시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선진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필리핀, 베트남, 중국,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범권 대표는 이러한 글로벌 진출을 통해 선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범권 대표는 선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름 15도'라는 경영 철학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상생의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성장을 의미한다. 이는 화려한 비상이나 단순한 이익 추구보다는, 함께 성장하며 고객 가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경영 철학을 통해 선진을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물어범권'과 같은 사내 소통 행사를 개최하여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무엇이든 물어범권'은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이 2022년 개최한 사내 소통 행사로서 이범권 총괄사장의 이름을 활용하여 지어졌다. 이범권 총괄사장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CEO와 직원 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은 이러한 비전과 철학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오름(S#op Oreum)'을 서울 강동구에 오픈하였다. '#오름'은 자연의 감동을 고객의 식문화 예술로 재현하는 것을 콘셉트로 하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은 '오름 15도' 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고객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주요 경력	주요 수상 내역
㈜선진 입사	한국 CEO 그랑프리 음식료 부문 수상
㈜선진필리핀 대표이사	축산물 브랜드 전 돼지 부문 대상
㈜선진 대표이사	농림부장관상
서울대학교 농업과학대학 동창회 부회장	소비자시민모임 선정 우수 축산물 18년 연속 선정 (2004~2021)
	제20회 소비자의 날 '공정거래위원장상' 수상
	제15회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2020년 경기도 축산발전 유공자 표창

75동 융합관

2003년 수원에서 관악으로 이전 이후, 수원 캠퍼스에 비해 부족한 강의실과 공동실험실 등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당시 대학신문 공간으로 사용되던 75동을 농생대와 산학협력단 공동으로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19년 6월 산학협력단의 공동 건축 철회로 인해 한때 사업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대학본부 기록관, 대학신문사, 총동창회가 공동 사업 주체로 나오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진척이 더디다가 마침내 2021년 6월 건축 허가를 받고 그해 10월 건축 기공식을 열었다. 착공한 지 만 3년인 2024년 10월 준공이 되고 2025년 1월 마침내 입주식을 개최하였다.

농생대 동창회 동문도 2017년부터 동창회보를 통한 건립기금 모으기에 발 벗고 나서서 농생대가 부담한 총 60억 원의 건축자금에 일조를 담당하였다. 동문이 모은 기금이 빛을 발한 역사적 현장을 동창회보를 통해 소개한다.

건축 개요	• 면　적: 건축면적 1,692m² / 연면적 10,890m²(농생대 전용면적 2,975m²) • 규　모: 지하 2층 / 지상 6층　※ 주차면수: 47면(법정기준) • 사 업 비: 307.13억 원(농생대 60억 원, 총동창회 100억 원, 국고 107.13억 원) • 입주기관: 농업생명과학대학, 역사기록관, 총동창회, 대학신문사

층	75동 공간 구성							전용면적	비고
6	공동 학부 실험실(3실) 331.61m²				NICEM 323.51m²			655.12m²	실험실
5	산학협력 공간 652.13m²							652.13m²	산학협력
4	학장, 부속실 116.43m²	부학장(4) 134.31m²	교무 72.52m²	학생 50.0m²	회의실 69.98m²	서무, 행정실장 116.56m²	기획,국제 84.44m²	644.24m²	상주부서
3	대학신문사 264.73㎡	창업공간 286.94m²	연구 행정실 96.26m²	중형강의실 73.10m²	창고 25.50m²	농과원 45.90m²		792.43m²	상주부서, 창업
2	대학 신문사 320.83m²	간호대 41.35m²	세미나실 116.50m²	소형 강의실 54.68m²	창고 54.92m²	총동창회 367.91m²		956.19m²	세미나실, 강의실
1	기록관(전시실) 986.14m²							986.14m²	–
B1	기록관 1,315.57m²						대강의실(1실) 270.62m²	1,586.19m²	–
B2	기록관 86.58m²	지하주차장 등						86.58m²	–
계								6,359.02m²	

(자료: 농생대 기획실)

한눈에 보는 75동 융합관

6층


공동학부실험실


Nicem 실험실

5층


산학협력단


예비창업자실

4층

서무행정실 등 상주 부서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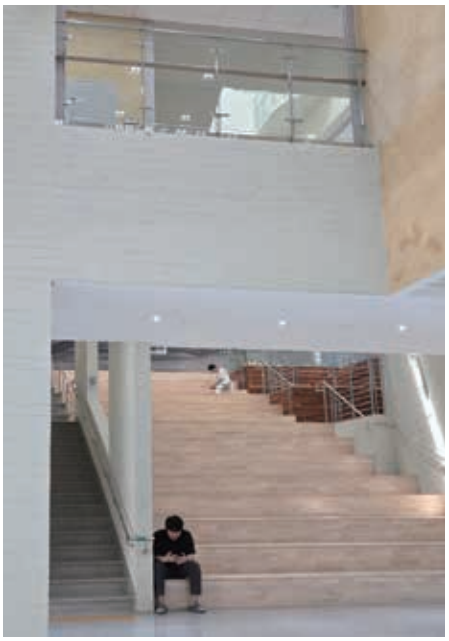

이현수 다목적 홀 내부


강의실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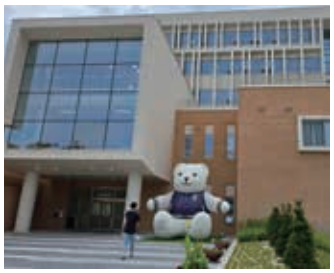
2층


총동창회


김상진 홀 내부


중앙 독서계단

1층


건물 정면


1층 로비

한눈에 보는 75동 융합관

B1



서강 강중현 대형강의실(220석)

기록관

B2

주차공간

측면에서 본 모형도



앞 도로는 순환도로, 뒤 건물은 농생대 도서관 건물과 NICEM

정면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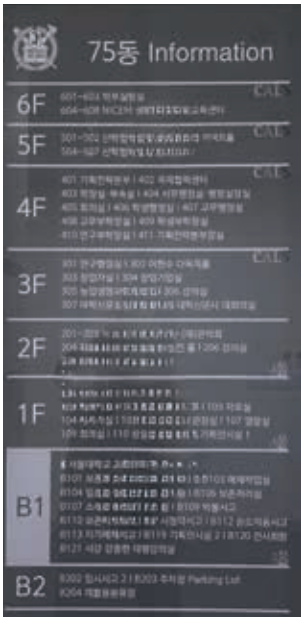


200동 본동에서 바라본 건물 정면

♣75동 건축의 활용기조

농생대는 75동 융합관을 통해 농생명과학의 미래를 위한 성장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누구나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학생창업공간과 첨단 신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과 학내 연구진의 공동연구 공간인 산학협력공간을 마련하였고 농생대 집행부 행정실을 75동으로 이전하고 비어 있는 본관(200동)에는 스마트 시스템과학과가 신설되어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강의실, 실험실, 대형강의실, 세미나실 등이 구비되어 그동안 부족했던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75동 동영상 QR



김상진기념사업회

김상진 열사 의거 50주기 추모제



김상진 민주광장 제막식

지난 4월 11일, 사단법인 김상진기념사업회는 수원 서둔동 옛 서울농대 캠퍼스 대강당 앞에서 김상진 열사 의거 50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김상진 열사는 1968년 서울대학교 축산학과에 입학했으며, 1975년 4월 11일 농대 교정에서 박정희 유신독재를 규탄하는 양심선언문을 낭독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 열사로 기록되었고, 1970년대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각성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민주화 항쟁이 확산되었으며, 많은 학생과 지식인이 시위에 동참했다가 구속되거나 제적되는 일이 잇따랐다. 이후 2002년에는 서울대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이 수여되었으며, 2021년에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되었다.

이번 50주기 추모식에는 정근우 김상진기념사업회 회장(농화학 84학번), 염태영 국회의원(농화학 80학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원 서울대 농생대 기획부학장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관계자, 선후배 동문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원들이 참석해 열사를 기렸다. 행사는 서울대 농생대 풍물패 '두레'의 공연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김상진 민주광장'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추도사 낭독과 풍물굿패 '삶터'의 진혼굿 공연, 함세웅 신부의 추모 강연, 이소선 합창단, 강은영(88, 농대 매김소리), 윤선애(84, 서울대 메아리)의 노래 공연 등이 이어지며, 김상진 열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아 깊은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염태영(농화학80) 국회의원 추도사



염태영(농화학80)

김상진 열사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이름 앞에 깊은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향한 불꽃 같은 의지를 품고, 거침없이 삶을 던진 그날로부터 어느덧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당신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월은 당신의 희생을 더욱 또렷하게, 더욱 뜨겁게 우리의



수원 옛 서울농대에 조성된 김상진 민주광장

가슴속에 새겨놓았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날, 당신은 외쳤습니다.

"들으라, 동지여!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흩뿌려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게 하자!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1975년 4월 11일, 서울대 농과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자유 성토대회에서 당신은 독재 정권 퇴진과 민주화를 당당히 요구하며, 단상에 섰습니다. 신사복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단상에 오른 당신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침착하고 담대하게, 양심선언문을 한 문장 한 문장 또렷이 낭독해 내려갔습니다. 그 의로운 외침은 유신헌법 철폐와 독재 종식,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5년 후인 1980년 4월, 민주화의 봄과 함께 이곳 농대 교정에서는 당신의 첫 장례식 겸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스무 살 청년이었던 저 염태영도 있었습니다.

그날 다시 낭독된 양심선언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고, 제 삶은 그 순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역사의 민낯을 똑바로 마주하였고,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묻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다." 당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한 청춘이 사라졌다"고.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청춘 하나가 수많은 국민의 양심을 일깨웠고,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을 거리로, 광장으로 이끌었다"고.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막아낸 것은 위대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의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선 시민도,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앞에 선 저 또한, 그 순간 김상진 열사와 함께였습니다.

김상진 열사님!

당신이 바라셨던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은 오늘도 정의를 외치는 청년의 목소리로,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의 손끝으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희생 위에 부끄럽지 않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를, 우리의 가슴 속에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다." 당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가 도래하는 날, 나 소리 없는 뜨거운

갈채를 만천하에 울리게 보낼 것"이라는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함께 걷겠습니다.

김상진 열사님, 이제는 반세기를 넘어,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 김상진.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정근우(농화학84) (사)김상진기념사업회 회장 추도사



정근우(농화학84)

날마다 "계엄"이었던 그해 봄, 한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휴대폰도, SNS도,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된 국회도 없던 시절, 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던 야만의 시대. 그 엄혹한 철권 독재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상진.

그가 역사의 재단에 몸을 던진 그날 이후, 어느덧 정확히 50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우리는 열사의 영정 앞에서 자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올해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절실합니다.

바로 일주일 전, 21세기에는 상상도 못 했던 계엄령이 발동되고, 그를 통해 집권 연장을 꾀한 내란의 무리들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시민의 힘이 그 음모를 제압했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의 수괴를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김상진 열사 의거 50주기를 맞아 우리는 그의 정신이 반세기 동안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발자취를 되새기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굴곡진 현대사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여정

우리 김상진기념사업회는 열사의 유지를 잇기 위해 1988년 창립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열사와 관련된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민주주의라는 큰 강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유족을 위로하며, 다른 열사들의 기념사업과도 연대해왔고, 묘지와 기념비를 보존하며, 장학사업과 출판 활동을 통해 후배 세대에게 열사의 정신을 올곧이 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주년을 맞은 올해, 그 노력은 몇 가지 큰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강의실에는 오랜 숙원이던 '김상진홀'이 새롭게 이름 붙여졌고, 기념사업회의 활동을 담은 '추모문집'이 제작되었으며, 열사의 의거가 있었던 이 역사적인 장소는 '김상진민주광장'으로 재탄생해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김상진, 시대를 일으킨 이름

1975년 4월 11일, 김상진 열사가 몸을 던지며 남긴 신념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피의 외침은 4년 뒤 독재자 박정희를 역사의 뒤안길로 데려갔고, 1980년 5월 광주의 피 묻은 골목에서, 1987년 6월 유월의 거리에서, 그리고 2017년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는 촛불의 바다 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마다, 김상진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금 불꽃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는 쓰러진 것이 아니라 깨어 있었고, 침묵한 것이 아니라 쉼 없이 우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이름은 죽음을 넘어, 시대를 건너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가장 오래된 맥박이었습니다.

현재를 향한 다짐

최근, 사상 유례없는 반민주·반민족적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 질서를 무시하며, 민족의 자존마저 외세에 내어주었던 윤석열 정권은 또 한 번의 시민혁명에 의해 역사 속으로 퇴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오랜 민주화 운동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열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촛불 하나, 함성 하나, 응원봉 하나에 담긴 열망은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던 김상진 열사의 외침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추모의 언어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혈관을 흐르는 영원한 맥박입니다.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이 농과대학 교정에서 민중적 실천을 통해 배워온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대단결을 지향하는 김상진의 정신을 오래도록 이어가겠습니다.



풍물패 두레 공연



추모문집



"오랫동안 김상진"이라는 슬로건은 바로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다짐입니다.

감사의 말씀

50년 동안 아픈 기억을 품고 살아오신 김상운 형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촛불의 현장에서 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해 주신 서울대 민주동문회, 특히 열사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온 5·22 선배 동지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수원 지역사회, 최근 빛의 혁명을 함께 만든 전국의 동지들께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굳건한 연대, 그것이 오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김상진의 이름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스마트시스템과학과는 농업 4.0 시대에 발맞춰 첨단 스마트 산업 핵심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생명과학, 공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폭넓은 시각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고, 동시에 스마트 농업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빅데이터, AI, IoT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과학 기반의 신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 학과이며 2025년 25명의 정원으로 첫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자료: 스마트시스템과학과 홈페이지 참조)

1. 교육 목표 및 학습 특징

스마트시스템과학과는 융복합 교육을 통해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전주기 가치 사슬 창출에 기여하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산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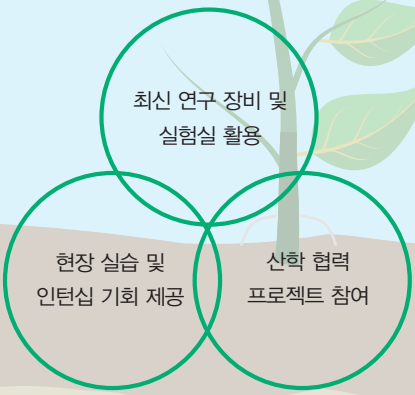
스마트 농업 및 스마트 리테일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스마트 농식품산업은 약 106억 달러, 스마트 리테일 산업은 약 3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각각 280억 달러, 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 목표

- 현장 기반형 문제해결 능력 육성
- 다학제적 통섭형 인재 교육
- 기업가 정신 글로벌 리더 양성

학습 방식

- 심화 학습 선택, 산업체 인턴십 및 프로젝트 수업
- 농학, 공학, 사회과학의 통합적 학습
- 비즈니스 마인드 및 국제 교육 프로그램 참여





2. 인재상

인재상

농업과학, 공학, 사회과학의 다학제적 학습과
스마트팜 신사업의 현장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데이터과학 기반 농림축산 식품산업의 융복합 통섭형 전문인력



AI·빅데이터 기반 농업 자동화 및 지능형 의사결정으로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된
디지털 인재

스마트 농산업 경영으로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농업 가치사슬을
최적화하는
글로벌 리더 인재



정밀 농업의 첨단 기술 활용으로
생산 효율성 향상을 연구하는
창의적 인재

생명공학과 스마트 기술 융합을 통하여
농생명과학 기술을 혁신하는
전문형 인재

자동화·로봇·IoT 활용 스마트팜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천적 인재

3. 핵심 전공분야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 IoT 센서, 드론 원격탐사, 로봇 기술 활용
- 커넥티드팜 구축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 확보
- 스마트 작물/가축 생산시스템 및 바이오기술 적용

스마트농업–식품연결
농산업 가치사슬

- 데이터 기반 농축산물 가격, 수요와 공급 예측
- 산지–소비자 연결 스마트 유통 시스템 구축
- 농식품 기술 창업 및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

농업 빅데이터 및 AI 의사결정

- 농업 및 환경 데이터 수집, 저장 및 관리
- 빅데이터 분석 및 기계학습 모델링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데이터농업 의사결정

기후–스마트농업
지속가능 생태계

-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농업기술 개발
- 빅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농업기반 환경 구축
- 농산업–환경 연결 글로벌 생태계 발전 전략 수립



“겸손한 자세로 함께하는 학장, 함께 이루는 미래”

강병철(원예86) 박사 모교 제29대 학장 취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모교 201동 대강당에서 제27대·제28대 장판식 학장의 이임식과 제29대 강병철 학장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박식순 동창회장과 안양시 민병덕 국회의원 등 외빈과 서울대 공대 학장을 비롯한 서울대 학원장, 모교 명예교수, 교직원과 학생 등이 참석하였다. 장판식 학장의 이임사에 이어 강병철 학장의 취임사가 있었으며 박식순 동창회장의 축사와 민병덕, 강득구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이임한 장판식 전 학장에게 동창회장이 공로패를, 강병철 학장이 교직원의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학생 대표들의 꽃다발 증정과 사진 촬영으로 식을 마쳤다. 새로 취임한 강병철 학장은 “CALS for CALS”라는 슬로건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농생대의 역량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는 힘찬 포부를 알렸다.



장판식 전 학장에게 박식순 동창회장의 공로패 전달



장판식 전 학장에게 강병철 신임학장의 감사패 전달

제29대 강병철 학장 취임사

존경하는 농업생명과학대학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9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으로 새롭게 취임하게 된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 강병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 주신 민병덕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외빈 여러분, 명예교수님, 서울대학교 학원장님, 학내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지난 120여 년간 식량 위기 극복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농업·생명산업 발전을 이끌며, 국가의 핵심 동력인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2003년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 이후 지난 23년간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을 이어 왔으며 2014년 개원한 평창 캠퍼스 또한 점차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5동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스마트시스템과학과를 신설하는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환과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는 우리 농림축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은 우수한 학부 인재의 유출과 대학원 진학률 저하라는 난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기후위기는 농업, 산림, 환경 과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농생대의 연구 외연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Food와 K-Culture는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AI와 로봇 기술을 융합한 AI 트랜스포메이션 및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첨단 생명공학과 친환경 바이오 소재 기술 등은 농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돌파구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저는 "CALS for CALS"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CALS)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이는 역량 강화를 통해 한계를 거침없이 돌파하고, 민첩한 운영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며,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로 함께 성장하고, 전략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저는 농생대가 독자적인 발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 단과대학과의 협업과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며, 서울대학교 전체의 동반 성장에 힘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원장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어느 한 분야의 주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성장을 이루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학장으로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며 중견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신진 교수님들께는 도전의 기회가 더욱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함께하는 학장, 함께 이루는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새로운 도약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원예학과 학사, 석사, 박사
미국 코넬대학교 식물육종학과 박사 후 연구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정책부단장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연구부처장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서울대학교 snu바이오 클러스터 추진단 부단장

주요 사회봉사

- 2015~2016 CJ브리딩(주) 자문위원
- 2016~현재 East-West Seed(태국 종자기업) 과학기술 자문위원
- 2019~2021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RB)
- 2019~현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
- 2020~2023 BMC Plant Biology Editor
- 2021~2023 Horticulture Environment Biotechnology 편집위원장
- 2023~2023 한국육종학회 학회장
- 2022~현재 FarmyirehSe 공동창업자(CTO)
- 2023~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 전문위원(바이오제조농림수산)
- 2023~2025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 2024~현재 NH농우바이오 사외이사

소멸의 흔적



남형철(작물생명14)

바람이 잠든 듯,
나비는 그 무거운 날개를 한 번 더 떨었다.
공중에 남은 것은 그의 가벼운 흔적뿐,
무언가를 남기려는 듯한 마지막 몸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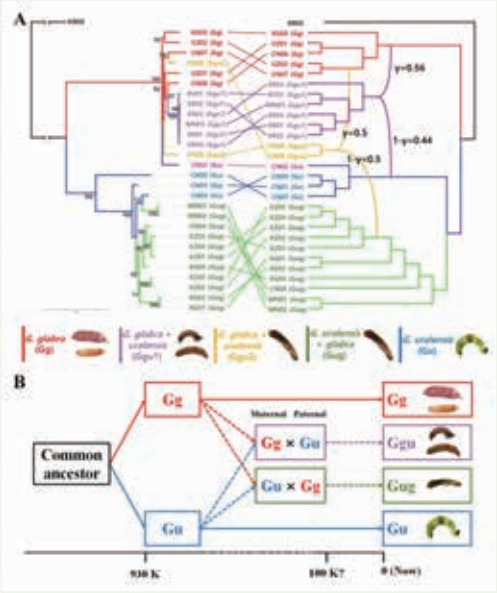
그는 부드럽게 하강하며
바위틈에 스며들 듯 내려앉았다.
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나비는 찰나의 비상을 마감하며
자신이 떠나온 자리를 잊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단지 부재뿐이 아니리라.
시간이 흐르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날개가 떨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 마지막 숨결마저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식물생산과학부 양태진(원예85) 교수팀, 감초 유전체 분석을 통해 우량 배수체 자원의 기원 구명



(이미지 출처: 서울대 제공)

식물생산과학부 양태진 교수팀은 Oxford Nanopore, Hi–C, Illumina 기술을 활용해 감초 유전체를 조립하고, 8개 염색체에서 구조적 변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감초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 홍천농고,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6월 2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와 홍천농업고등학교가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이 실습장과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진로 멘토링과 취업 연계 인턴십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림생물자원학부 김도순 교수, 제18대 세계잡초학회장 선출



지난 2월 농림생물자원학부 김도순(농학85) 교수가 제18대 세계잡초학회장으로 선출됐으며, 3월부터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농림생물자원학부 김현중 교수, 외국인 최초 일본접착학회 공적상 수상



6월 30일 산림과학부 김현중(임산83) 교수가 외국인 최초로 일본접착학회 공적상을 수상했으며, 일본접착학회 석학회원으로도 새롭게 선정됐다.

산림과학부 박일권 교수, 제13회 송정곤충학상 수상



4월 24일 산림과학부 박일권(농생물91) 교수가 곤충학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제13회 송정곤충학상을 수상했다.

식물생산과학부 강병철 교수, 국가개발 성과평가유공 장관 표창 수상



4월 21일 식물생산과학부 강병철(원예86) 교수가 국가 R&D 제도 개선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국가개발 성과평가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농경제사회학부 김한호 교수, 일본농업신문과 간담회



5월 28일 농경제사회학부 김한호(농경제79) 교수가 일본농업신문 편집위원 및 기자들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농경제사회학부 김관수 교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민간위원장 재선출



6월 12일 농경제사회학부 김관수(농경제82) 교수가 제5, 6기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이어 제7기 민간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모교 소식과 교수 동정

식물생산과학부 양태진(원예85) 교수, 한국약용작물학회 회장 취임



7월 1일 식물생산과학부 양태진(원예85) 교수가 한국약용작물학회 신임 회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김용노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학술상 수상



7월 2일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김용노(식공88) 교수가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학술상을 수상했다.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김영훈 교수 연구팀, 노화 · 인지기능 관련 미생물 유전자 규명



동물생명공학전공 김영훈 교수 연구팀은 장내미생물 유래 질소산화물 대사가 숙주의 노화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미생물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

연구팀은 한국 전통 유래 프로바이오틱스 자원 균주의 기능성 유전자를 미생물 전장유전체연관분석(mGWAS)기법을 활용해 노화 억제와 인지기능 회복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발굴하고, 예쁜꼬마선충과 마우스 모델에서 이를 검증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 효능 관찰을 넘어, 유익균 내 유전자가 실제 숙주의 행동과 뇌 대사, 장내미생물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자 수준에서 밝힌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학생 소식

농생대 봄 축제 '녹음(綠陰)'



5월 20일 화요일 75-1동 광장 앞에서 농생대 봄 축제 '녹음'이 개최됐다. '초여름의 청춘을 기록하다'라는 콘셉트를 담은 이번 축제에는 장판식 학장이 준비한 커피차가 트램펄린과 포토부스와 함께 학생들의 눈길을 끌며 활기를 더했다.

농생대 농민학생연대활동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북 임실 치즈마을에서 농민학생연대활동이 열렸다. 약 35명의 학생이 참여해 작업반, 생활반, 문화반으로 나뉘어 마을 환경 개선과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행정실과 농생대 동창회, 농협의 지원으로 내실있게 마무리됐다.

동창회 2024년 회계감사

4월 10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동창회 2024년 회계감사가 있었다.

제1차 상임부회장 · 상임이사 회의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제1차 상임부회장 · 상임이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의 주요 회무 및 감사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 상록인 대상 선정자에 대한 추인과 명예의전당 헌정자 발의 안건이 통과됐다.

2025년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0학번 대표자 3차 모임



4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올리브에비뉴에서 90학번 대표자 3차 모임이 열렸다. '2025년 상록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동창회보 제108호 발행



동창회보 제108호가 2025년 5월 1일 자로 발행돼 동문들에게 발송됐다.

2025년 상록의 날 행사 개최



5월 10일 토요일 본교 201동 대강당에서 90학번 주관으로 '상록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은사님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창회장 인수인계식



5월 10일 토요일 상록의 날 행사에서는 동창회장 이 · 취임식이 함께 열렸으며 이날 서병륜(농공69) 제11대 동창회장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박식순(농교육77) 동문이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식을 마친 후 동창회 사무실에서 동창회장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제29회 상록문화재단 이사회



5월 13일 화요일 상록문화재단 제29회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개선과 함께 신임 이사장 선임이 이뤄졌다.

전(前)회장단과의 간담회



6월 26일 마포 탑클라우드23에서 전(前) 동창회장단과 신임 동창회 운영진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제2차 상임부회장 · 상임이사 회의



6월 30일 월요일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제2차 상임부회장 · 상임이사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2대 임원 위촉 결과와 포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선정 보고가 이뤄졌으며, 고문 · 명예회장 · 자문위원 추대 안건이 심의 · 의결됐다.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이 · 취임식



7월 25일 금요일 201동 대강당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이 · 취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27 · 28대 학장을 역임한 장판식 박사가 이임하고 제29대 학장으로 강병철 박사가 새롭게 취임했다. 박식순 동창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장판식 전 학장에게는 동창회에서 공로패를 전달했다.

임산공학과 동문회



5월 16일 금요일 임산공학과 동문회는 충남 당진 파인스톤CC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70학번부터 06학번까지 총 16명의 동문이 참석해 친목을 다졌으며, 이전제(임산70), 이학래(임산75), 차주일(임산77), 이동주(임산86) 동문 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동주 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임산공학과 동문회는 오는 9월 19일 골프대회, 11월 1일 홈커밍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공 동창회 2025년 대선배의 날



5월 13일 화요일 농공동창회에서는 수원캠퍼스와 농장에서 2025년 대선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재호(농토목81) 동창회장과 박영준(농기계95) 간사장을 비롯하여 총 34명의 동문과 동문 가족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공학관과 리뉴얼된 농장을 둘러보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63동기회에서 찬조금을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산업인력개발학 동문회 춘계 행사



5월 24일 토요일 산업인력개발학과 동문회가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춘계행사를 개최했다.

김지용(농교육83) 동창회장, 이윤조(농교육94) 원우회장, 학과장 정진철(농교육91) 교수를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농업 교육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우리 농업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행사는 이승영(농교육83) 동문의 대금 연주로 막을 올렸으며, 참가자들은 농업관 1 · 2 전시관을 관람한 뒤 관련 퀴즈에 참여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임학 동문회 2025년 봄 소풍



4월 19일 토요일, 임학 동문회[회장 조재구(임학83)]는 서울식물원에서 봄 소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기수의 동문과 임원진, 가족들이 함께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식물원을 둘러보며 봄의 정취를 느끼고 식물에 대한 이해도 함께 나눴다.

각 학과 동문회 소식

농가정학과 동창회 야유회



5월 29일 농가정학과 동창회는 수원캠퍼스에서 야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립미술관 로비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화성행궁을 둘러보며 친목을 다졌다.

식공인의 밤 행사



5월 30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식공인의 밤 행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관화, 서진호 명예교수를 비롯한 학과 교수진들과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동문 동정

이규연(농학81),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비서관 임명



6월 8일, 이규연 동문이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수석비서관은 중앙일보에서 탐사보도 기자로 언론 경력을 시작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진행자, 탐사기획국장, 보도국장, 고문 등을 역임하며 언론계에 족적을 남겼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성동렬(원예87), 툴젠 신임 종자사업본부장 선임



성동렬 동문이 6월16일 유전자 교정 기술 기업 툴젠(유종상 대표)의 신임 종자사업본부장으로 선임되었다. 성 동문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종자 개발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로 글로벌 종자 기업인 몬산토(현 바이엘 크랍사이언스)에서 10년간 재직하며 옥수수 및 콩 품종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냉해 및 가뭄 저항성 증진, 수량 증대 등 핵심작물의 특성개선 연구개발을 주도했고, 몬산토의 옥수수 및 콩에 대한 필드재배 특성평가 플랫폼을 총괄했다. 또한 차세대 글로벌 옥수수 농업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Preceon Smart Corn System'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LG화학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 기반 제초제 저항성 식물 개발을 주도했고, 미생물 활용 특수 화학물질 합성 연구에 참여하는 등 그린바이오와 화이트바이오 분야의 폭넓은 연구개발 전문성을 가졌다.

이영수(농경제94),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 임명



이영수 동문이 6월 7일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고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농림축산비서관 업무를 수행 중이며 경삭북도 영천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며 지난해 7월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장과 경북도당위원장 등을 지냈다.

'대학찰옥수수' 개발자, 최봉호(농학56) 동문 별세



찰옥수수 품종 '대학찰옥수수'를 개발한 최봉호(농학56) 동문이 5월 21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출신인 고인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학 시절부터 옥수수를 전공해 평생 찰옥수수 연구에 매진했으며, 그가 개발한 '대학찰옥수수'는 알이 굵고 당도가 높아 국내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았다.

동문 동정

동문 경조사(2025. 4. 1.~2025. 7. 31.)

애사

[본인상]

고광출(농학54) 본인상 6월 28일 발인
이대희(축산74) 본인상 5월 24일 발인
최봉호(농학56) 본인상 5월 21일 발인

[가족상]

김광식(농토목74) 부친상 6월 23일 발인
김도만(식공81) 부친상 5월 25일 발인
김동선(농토목85) 모친상 4월 15일 발인
김동선(농토목85) 빙부상 4월 5일 발인
김송이(식공89) 부친상 7월 9일 발인
김용율(임학82) 모친상 5월 3일 발인
김우진(임학86) 빙모상 5월 23일 발인
김정우(식공88) 모친상 7월 25일 발인
남현석(농교육81) 빙모상 6월 27일 발인
동명곤(식공89) 빙모상 7월 5일 발인
류일훈(농기계91) 모친상 5월 28일 발인
류일훈(농기계91) 모친상 5월 28일 발인
박석두(임학72) 빙모상 7월 1일 발인
박성직(농토목01) 빙부상 6월 25일 발인
박우포(식공79) 빙부상 5월 30일 발인
박종길(식공93) 자녀상 7월 25일 발인
박찬열(임학88) 부친상 6월 16일 발인
박천석(식공84) 빙모상 4월 15일 발인
박홍제(농기계87) 빙부상 6월 19일 발인
방돈석(농토목82) 빙부상 4월 17일 발인
서민환(임학81) 모친상 7월 9일 발인
성찬용(식공86) 모친상 7월 6일 발인
손승현(산림자원93) 부친상 4월 23일 발인
손정익(농토목75) 모친상 6월 11일 발인
신경수(농토목84) 모친상 4월 5일 발인
엄명철(농토목87) 부친상 4월 29일 발인
염준걸(원예18) 모친상 7월 20일 발인
오용훈(농토목94) 모친상 4월 25일 발인
우동호(식공82) 빙부상 5월 5일 발인
원혜정(식공96) 시모상 4월 18일 발인
이동근(농토목88) 부친상 6월 10일 발인
이명수(농토목79) 빙모상 4월 21일 발인
이민수(농교육89) 모친상 6월 20일 발인
이선동(농교육68) 빙모상 4월 10일 발인
이유미(임학81) 시모상 7월 9일 발인
이준섭(식공94) 부친상 7월 24일 발인
이준엽(임산80) 부친상 5월 8일 발인
이찬용(식공79) 빙부상 5월 30일 발인
장중석(농토목80) 모친상 7월 8일 발인
정도현(임학82) 빙모상 5월 13일 발인
정동호(원예92) 빙부상 6월 17일 발인
조광수(원예 박06졸) 부친상 7월 24일 발인
최승호(농경제09) 조모상 5월 14일 발인
하원호(식공87) 빙부상 7월 9일 발인
홍석주(바시공12) 모친상 7월 12일 발인

경사

김영환(식공81) 딸 결혼 4월 12일
나현(잠사80) 자녀 결혼 6월 7일
박노영(식공85) 아들 결혼 5월 17일
이영진(식공82) 딸 결혼 6월 8일
이정우(식공85) 아들 결혼 5월 24일
정운양(농토목79) 장녀 결혼 6월 14일

신간 소개



최건업(농기계85)
『내 마음을 바로 알아 괴로움을 벗어나다』

최건업(농기계85) 동문이 『내 마음을 바로 알아 괴로움을 벗어나다』를 펴냈다. 이 책은 『대승기신론』 강독과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괴로움의 원인이 내 안의 생각에 있음을 살피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안내한다.
난해한 원문을 쉽고 자세히 해설하고, 강의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해 이해를 도왔다. 생각을 멈추고 살피는 수행을 통해 고요함과 명료함에 이르는 기신론의 길잡이이자, 일상의 번뇌와 고통을 마주한 이들에게 현실적인 해답을 전하는 책이다.



이규현(농공81)
『산책+무지렁이의 아우성』

이규현(농공81) 동문이 첫 산문집 『산책+무지렁이의 아우성』을 펴냈다. 30여 년간 웹개발자로 살아온 저자가 기술자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문장으로 삶의 이면을 포착했다.
책은 "일상의 조용한 풍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무지렁이의 아우성"을 담아,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감정과 풍경을 섬세하게 건져 올린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감성 산책'을 제안하며, 잊고 지냈던 '살아 있음'의 감각을 부드럽게 일깨운다.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에 후원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 4. 1.~2025. 7. 31.)

동창회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상록문화재단 농협 301-0068-1319-91 (예금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6,000만 원



박식순(농교육77)
케이에스 그룹 회장
동창회장

박식순 동창회장은 2025년부터 모교에 신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의 발전을 위해 모교와의 협의하에 정원 25명 학생 중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록문화재단에 해당 장학생 등록금 전액을 기탁하였다. 박식순 회장은 이 장학금으로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차세대 융합 농업생명과학 인재들이 길러져 미래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의 안착을 위해 자신의 기부금이 씨앗이 되어 동문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200만 원



故이광우(농화학56)
前 연세대학교 교수

7월 25일 동창회로 전화 한 통이 왔다. 남편인 前 연세대교수 이광우(농화학56) 동문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고 싶다는 부인의 전화. 부군과의 이별이 5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한 그리움으로 가슴 한쪽이 먹먹하다는 김혜영(농학58, 前 동국대 교수) 동문은 문득 남편의 책자를 정리하다가 한 글귀를 발견했다고 한다. 생전에 부인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적혀 있던 그 글귀 속에서 남편의 마음을 읽었다는 김혜영 동문은 그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 남편의 이름으로 상록문화재단에 장학금을,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겠노라 하였다. 생전에 이광우 동문이 쓴 글귀를 소개한다. "나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그림자', '아름다운 그림자'만은 남기고 싶어라."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그림자를 남편에게 선사한 김혜영 동문께 동창회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1,000만 원



김상석(농생물68)
前 ㈜바이오리더스 대표이사

600만 원

농화학동문회
회장 윤정원(농화학85)



임영오(농교육78)
㈜애니텍 대표이사

500만 원



김홍진(농생물65)
투엠바이아연구소 소장



이범권(축산75)
선진㈜ 대표

500만 원

주원준(농생물63)
유원에코싸이언스㈜
회장

농생대 90학번 장학금

300만 원



고상운(임산공82)
(유)에코텍코리아 대표



강영애(농가정82)
동창회 前 총무이사

이병묵(농생물64)

150만 원

광교동문회
회장 김인태(임산공77)

동창회는 회원 여러분의 정성 어린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동창회비는 동문 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을 위한 행사, 재학생 장학금 지급, 『동창회보』 발간 등에 사용됩니다.
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명단에 누락된 분은 동창회(전화: 02-880-4525 또는 문자: 010-8823-863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입 안내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동창회 임원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비 입금 시 '홍길동농공63' 식으로 본인 이름을 밝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임원					일반회원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연회비	종신회비
3,000,000원/년	300,000원/년	200,000원/년	150,000원/년	100,000원/년	30,000원/년	300,000원

회비 · 찬조금 납부자 명단(2025. 4. 1.~2025. 7. 31.)

종신회비

강석기(임산가공71)
김수호(식공74)
김주학(농화학76)
류수연(식공93)
서은희(농가정90)
송현규(농화학87)
허재민(조경15)

상임부회장회비

고동희(임학66)
권용대(농경제73)
김상석(농생물68)
신희순(잠사69)
이남호(임산가공78)
이종식(농공72)
임영오(농교육78)
팽기석(농기계82)

부회장회비

김영관(농화학80)
김재원(임학74)
김재철(식공74)
사공문(농기계72)
심상우(축산57)
이군자(농가정63)
이길순(농가정72)
이병식(농교육89)
이종린(농화학71)
정선자(농가정62)
제상우(조경85)
허길행(농경제65)

상임이사회비

김대훈(농기계86)
박미선(산림자원97)
송인홍(농토목92)
이혜숙(식공85)
장영배(농생물84)

이사회비

김민수(농교육91)
김중수(농생물56)
김진석(농교육69)
김창중(농생물77)
김한주(농공87)
박연형(임산공82)
성주한(임학78)
신민승(농경제08)
신준섭(농화학85)
안지영(임학06)
이우신(임학75)
장성용(축산79)
정진호(농화학91)
최광환(동물생명06)
최승조(농기계72)

연회비

강용신(농경제54)
구외석(원예84)
김관우(식공83)
김광호(농학61)
김남영(농지도80)
김삼중(농화학90)
김서연(응생화19)
김운용(잠사71)
김윤희(농가정83)
김재홍(축산57)
김정곤(농학72)
김종근(축산90)
김종원(임학57)
김주영(농경제19)
김지원(농경제21)
김진수(농공66)
노인열(농교육82)
류병훈(농학71)
마종선(축산82)
민형기(농공67)
박경희(농가정69)
박재복(농기계70)
박종호(농학94)
박효근(축산75)
박흥규(농교육79)
박희구(농학52)
배성진(농기계88)
변재균(농학60)
서정근(농학59)
신용석(농화학61)
안수구(임산73)
안윤식(축산70)
안홍모(환경재료 석06졸)
오성환(농생물88)
오수영(농화학59)
우성봉(농공79)
원상호(농학90)
유문일(농생물66)
윤인수(원예82)
이갑식(임산가공71)
이건일(농공60)
이석순(농학62)
이승돈(농생물86)
이승현(잠사81)
이우룡(농경제98)
이응태(바시공 석09졸)
이장훈(농학84)
이정환(푸드테크 석23졸)
이준원(농가정74)
이태희(잠사69)
임용섭(농기계87)
임종문(농기계78)
전건표(응생화17)
정기택(임학66)
조광동(농학53)
조성환(농화학67)
조영호(임학84)
조은영(푸드테크 석23졸)
진종석(농학86)
채영석(축산52)
최병권(농공84)
최송웅(임학60)
최종민(농생물93)
최충효(식공02)
황용진(농공56)

동창회 찬조금

박식순(농교육77)	10,000,000
안수구(임산73)	70,000
이남호(임산가공78)	50,000
이돈구(임학65)	100,000
한휘언(축산62)	100,000

2025년 상록의 날 찬조금

(괄호 안은 동기 대표)

농학(김태헌)	2,850,000
임학(임상표,김종운)	4,000,000
축산(축산90동기회)	3,000,000
농토목(윤상현)	2,500,000
농기계(육응수)	3,200,000
농화학(조영일)	3,800,000
농경제(김태완)	3,150,000
농생물(김순옥)	4,300,000
천연섬유(이영근)	3,000,000
농가정(김경란)	2,300,000
농교육(김현수)	2,300,000
농지도(황규태)	1,450,000
식품공학(박명수)	3,800,000
원예(오욱)	2,500,000
임산공학(신종찬)	3,100,000
조경학(여기영)	2,700,000

상록문화재단 기부자

(2025.4.1.~2025.7.31.)

강영애(농가정82)	3,000,000
고상운(임산공82)	3,000,000
광교동문회	1,500,000
김병화(농학55)	200,000
김상석(농생물68)	10,000,000
김홍진(농생물65)	5,000,000
농화학동문회	6,000,000
박식순(농교육77)	50,000,000
안수구(임산73)	100,000
이광우(농화학56)	12,000,000
이범권(축산75)	5,000,000
이병묵(농생물64)	3,000,000
임영오(농교육78)	6,000,000
임종덕(농생물99)	80,000
전창후(원예83)	40,000
정진호(농화학91)	300,000
주원준(농생물63)	5,000,000
최치민(식공90)	150,000

동창회보 인쇄 협찬 기업

106호 : 로지스올, ㈜선진
107호 : 로지스올, ㈜선진
108호 : 로지스올, ㈜선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제8회 상록문학상 공모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동창회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8회 상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공모내용: 창작 시, 창작 수필(분량 A4지 12pt 2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하)
2. 참가대상: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대학원 동문과 재학생(휴학생 포함), 교직원
   (단, 기존 1~7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는 제외)
3. 작품소재: 나(I), 너(You), 우리(We)
4. 출품기한: 2025년 10월 13일(＊작품 제출 시 성명, 소속, 휴대폰 연락처 기재 바람)
5. 작품제출: snunong7@naver.com
   (메일 제목을 '상록문학상 공모–홍길동'으로 명시 요망)
6. 수상자 발표: 10월 31일 농생대동창회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 연락
7. 시상: 11월 6일 예정
8. 시상 내역

시상/공모 부문	시	수필	시상 내용
최우수상	1명	1명	상장과 상금 50만 원
우수상	2명	2명	상장과 상금 30만 원
가작	3명	3명	상장과 상금 15만 원
참가상	10명	10명	1만원 상당 커피 쿠폰

9. 기타 안내
   1) 수상작은 동창회보에 게재 가능
   2) 본인 창작품이어야 하며 수상시 작품의 소유권은 농생대 동창회에 귀속됩니다.
   3) 제8회 수상작은 동창회보 110, 111, 112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4) 농생대동창회 홈페이지(http://snuagria.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0. 문의 : 전화 02–880–4525, 휴대폰 010–8823–863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Alumni Association,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뉴스와 공지 +더보기

- **제8회 상록문학상 공모전** 2025.08.06
- 2025년 제 2회 상임부회장,… 2025.06.30
- **2025년 상록의 날, 제12대…** 2025.05.27
- **동창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2025.05.15
- 2025년 상록의 날 행사 안내 2025.04.28

회원동정 +더보기

- (경사) 김미혜(농가정78) 차… 2025.08.14
- (부고) 김상병(농생물84) 부… 2025.08.14
- (부고) 안성광(원예 석14졸)… 2025.08.12
- (부고) 김영석(식공86) 부친… 2025.08.11
- (부고) 홍지선(식공98) 부친… 2025.08.11

학과 및 각 동창회소식 +더보기

- 서울대 농생대 산악회 요세미티 … 2025.08.08
- [산업인력개발학과 동창회] 20… 2025.04.23
- 2025년 식공인의 밤 행사 안… 2025.04.22
- (임학동문회) 2025년 신년교… 2024.12.27
- [산업인력개발학과 동창회] 연말… 2024.12.24

포토갤러리 +더보기


제2회 상임부회장, 상임이사회의…


2025년 상록의 날


제6회 상록문학상 시상식

동영상 +더보기


2025년 상록의 날 행사


[2025년 상록의 날]11대 …


2024년 상록의 날 행사

명예의전당 | 마이페이지 | 모교소식

동창회보 보기

[제 108호] 2025년 5월 동창회보 모두 보기

권두언	**동창회장으로서의 6년을 마무리하며. 서병륜(농공69) 동창회장**	2025.06.27
	(신년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병륜(농공69) 동창회장	2025.01.02
	(신년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병륜(농공69) 동창회장	2024.01.02
기타	**(화제의 동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주역- 이경준(임학63)…**	2025.06.27
	(특집1) 2025년 75학번 주관 새해인사회	2025.06.27
	(제7회 상록문학상 시 부문 최우수작) 그냥 - 우성봉(농공79)	2025.01.02
동문수필	**제7회 상록문학상 수필부문 최우수작[나로시시즘]-김민욱(농경제20)**	2025.06.27
	제5회 상록문학상 수필부문 최우수작 <500원짜리 잔소리>	2023.04.28
	시선이 머문다는 건 사랑이겠지	2022.04.25
동문탐방	**힘성 노아의 숲 대표-박주원(농교육72)**	2025.01.02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삶 (정봉진 농학73)	2024.01.02
	체코슬로바이카 한인대부, 김만석 동문	2023.04.28
만나뵙고싶었습니다	**수확후 관리분야학 도입과 한국원예학회의 발전을 위한 여정-이승구(농…**	2025.06.27
	우리나라 가축 인공수정 분야의 개척자 -임경순(축산54)	2025.01.02
	국내 곤충 분자생물학 분야의 기초를 다진 곤충학자- 이시혁(농생물8…	2024.09.06
상록그리고상록의아들	**상록캠퍼스, 잊혀져가는 것에 대한 그리움-안형진(천연섬유89)**	2025.01.02
	나의 연속 산행 1,000일 - 임상녕(농경제65)	2024.09.06
	1980 서툰별 야화-조동표(임학80)	2024.04.30

서울대 농생대 학과 선택

학과명을 입력해주세요

그리운 동문찾기

동문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동문찾기

입학연도 선택하세요

졸업연도 선택하세요

동창회 사무실 02.880.4525, 010.8823.8630

동창회비 계좌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서울대농생대동창회)